朝鮮日報 夕刊 十七日(金) 本紙朝夕刊十二頁

國策內容決定에는 軍事豫算이 難關

三十億에 達하는 陸軍第二次國防計畫과 二十億에 갓가운 海軍第二次計畫이 問題

軍部는 公債增發可能을 强調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八月十日頃까지에 政府로서의 國策內容을 決定하고 所謂 庶政一新의 實을 擧하기 爲하야 目下 三長官을 督勵하야 各省에서 廣田의 國策內容을 檢討하고 잇는데 國策內容決定에 當하야 가장 問題되여잇는것은 勿論 總額三十億圓에 達하는 陸軍側의 第二次國防計畫과 總額二十億圓에 가까운 海軍의 第二次計畫의 取扱에 잇다 그리고 廣田首相은 組閣에 際하야 軍要求에 優先權을 與하는데 어느 程度의 言質을 與하엿다 하나 目下 馬場藏相이 抱懷하고 잇는 財政計畫으로 보드라도 如斯히 膨大한 國防豫算을 承認하기는 不可能하다고 觀測되든바 이에 對하야 軍部에서는 藏相의 增稅又는 特別會計의 繰入金에 依한 財政計畫 特히 公債政策에 對하야는 其態度가 자못 不徹底하다하야 公債增發의 可能性을 强調하는 一方 馬場藏相도 組閣後 財界方面의 意嚮을 여러가지 機會에 亘하야 打診한 結果 增稅及公債發行額에도 어느 程度의 限度를 附할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한 模樣인바 卽時 軍部의 主張에 追隨하리라고도 思惟되지안코 豫算決定의 最後關頭인 財政과 國防費의 調和點을 見出하기 爲하야 開催가 豫想되는 首相 陸軍 海軍 大藏의 四相會議에 際하여도 財政經濟現狀에 立脚하야 右 豫算을 强調할려로 이에 對하야 軍部에서는 軍要求는 庶政一新見地에서 藏相의 說明에 反駁을 加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滿間에 處한 廣田首相은 相當히 困難한 立場에 서게될것이다 그러나 首相은 目下 藏相의 說에 實際를 表하고 財政當局의 立場에 同情的見解를 가지고잇는데 上述한 理由에 依하야 軍部로서도 首相及藏相의 見解에 賛同하리라고 생각되지 안흠으로 國策決定期의 切迫과 함께 右問題의 推移는 財界에도 大影響을 與하리라 하야 注目되여잇다

行政機構改革에 廣田首相消極的

枝本塞源的改革과 크게 乖離

軍部의 滿足如何注目

【東京電話同盟】 廣田首相은 政府의 重要政策을 實行하는데 必要한 局部的行政機構改革을 行할 計劃이 잇다는것은 이미 言明하엿는데 國防充備計畫과 併行하야 陸軍等이 提唱하는 調査局의 擴充强化案과 內閣制度改革과 如한 根本的政治機構改革問題에 關하여는 全혀 否定的態度를 表示하고 調査局의 機能은 現在대로 充分發揮할수잇다고 생각됨으로 此를 只今單獨의 問題로 改革할 意圖는 全然업고 調査局長官을 無任所大臣으로 하는것은 當分間必要업다는 意圖를 가지고 잇다 또 省의 設置問題에 關하여도 各省의 數는 今後增加하는 趨勢는 잇스나 此를 減하는 如한 것은 時代에 逆行하는것이라하야 比較的 改革에 對하여는 廣田首相은 全然其意圖가 업는것이 明白하게되엿다 그리고 航空省 保健省의 設置案에 對하야 首相은 그 主旨에는 贊成하나 早急한實現을 不許한다는 見解를 가지고잇다 따라서 廣田首相이 意圖하는 改革案은 陸軍側이 要望하는과 如한 枝本塞源的改革과는 極히 乖離하여잇슴으로 軍部가 果然 이程度의 微溫的改革案으로 滿足할는지 其推移는 注目되다

東京治安平常化 十八日부터 戒嚴令解除

【東京電話同盟】 二、二六事件때 緊急勅令에 依하야 東京에 布告되엿든 戒嚴令一部適用은 그後民心의安定、治安狀況의 推移其他四圍狀勢에 依하야 三月二十日、六月一日、同十五日의 三回에 亘하야 適用內容이 漸次緩和되여 現在는 오즉 二、二六事件에 關한 諸般論議의 集會만 禁止되엿든바 事件의 前後處理도 大體終了되야 인제는 戒嚴의 施行을 必要로하지 안는程度로 平常化하엿슴으로 政府는 드듸여 此를 撤廢키로決定하고 諸般手續도 完了되엿슴으로 十七日定例閣議에서 正式決定을하고 直時 上奏 御裁可를 經하야 即日 左와如히 官報號外로서 公布하고 十八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二、二六事件以來 百三十日에 亘하야 戒嚴의 重壓下에 잇든 帝都는 於是乎 靑天을우러러보게되엿다

戒嚴令解除勅令

【東京電話同盟】 昭和十一年勅令 一定地域에 戒嚴令中必要한規定을 適用하는件 廢止의件

昭和十一年勅令第十八號는 此를廢止함

附則

本令은 公布의當日부터 此를施行함(卽十八日부터實施함)

陸軍省發表 ＝十七日正午＝

【東京電話同盟】 去二月二十六日下令된 第一師管의 戰時警備는 七月十八日解除되엿다

戒嚴日誌 二月卄七日부터 七月十八日까지

【東京電話同盟】 今回의 戒嚴令은 二月二十七日부터 七月十八日까지 實로 百四十三日에 及하는 未曾有의 長期間에 亘한것으로 그 間에잇서 主要한 事件은 左와如하다

▲二月二十六日

午前五時叛亂部隊蹶起 各所를 襲擊 當日 霏霏紛紛 實로慄慄 櫻田門事變을 想起케하야 人心不安、株式取引所停止

午後七時東京警備司令部로부터 라디오로서 今日午後三時第一師管에 戰時警備가下令되엿다는 旨가發表되고 一般市民의 冷靜沈着을 要望하다

午後八時十五分 陸軍省으로부터 發表가잇고 蹶起한 重臣의 일홈이 判明되다 그리고 叛亂部隊가 蹶起한旨를 公表하고 東京衛戍部隊는 非常手配에 就하엿다

午後八時四十分 第一第二艦隊 各 東京灣及大阪灣에 向하야 回航을命하고 各其二十七日入港豫定 橫須賀警備隊는 東京警備司令을 受하고 二十六日午後 芝浦에 到着한 旨가 發表되다

▲當夜라디오는 通常放送을 中止하고 帝都의 狀況을 報道함이 深更까지 이르럿다

▲宮中에서 樞密院會議를 開會

▲首相代理後藤內相參任

▲二月二十七日

▲午後一時十分 後藤首相代理 闕下에 各閣僚의 辭表를 捧呈

▲午後二時半 마츰내 戒嚴令이 宣布되다 戒嚴區域東京市內、戒嚴司令官은 東京警備司令官香椎浩平中將 戒嚴司令部는 九段軍人會館(市內는平靜 交通機關도 普通狀態)

▲午後四時四十分 戒嚴司令官으로부터 警視總監及憲兵司令官에게 軍事에關係잇는 警察機關에 左의如한 命令을 發하다

一、集會及 時勢에 妨害잇다고 認定하는 新聞、雜誌廣告의 停止

二、銃砲彈藥兵器의 賣買又는 授受禁止

三、交通은 停止되지안코(平常狀態)

四、警戒配備 嚴重하함

▲叛亂部隊는 夕刻부터 步兵第一聯隊長 小藤大佐指揮下에 首相、藏相、農相、文相、各官邸 赤坂幸樂 山王호텔等에 宿泊

▲夜來流言亂飛하야 午後九時二十分 戒嚴司令官으로부터 「流言에 迷惑되지말라」는 라디오로 注意

▲陸軍各軍事參議官 當日부터 軍人會館에서 宿泊을開始

▲二月二十八日

▲朝來 陸軍首腦部와 叛亂部隊와의 往來頻繁

▲午後二時 爲先叛亂部隊를 드시 보이다

▲午後三時 形勢再次不穩

▲午後九時五十分 戒嚴司令部로부터 드듸여 左의 發表가잇섯다

一、昨二十六日早朝叛亂을 이르킨 部隊는 目下麴町永田町附近에 잇는바 이에對하야 戒嚴司令官은 適宜의措置를 講究하고잇다

二、前項部隊以外의 戒嚴司令官 隷下의部隊는 陛下의 大命을奉하야 行動하고잇는바 軍規嚴正 士氣旺盛

三、東京市內는 麴町永田町附近의 一部以外는 平靜하고도 其他全國各地는 何等變化가업고 平穩하다

▲今日早朝各區는 各警備를 組織하야 警戒에 當하다

▲午前八時十分 市電에 스는運轉交通機關에 變化는업다

▲夜半部局、松本、甲府、若松 新發田으로부터 一部의 部隊 上京

▲戒嚴司令官隷下의 近衛師團 [illegible]

▲밤이길어지자 殘雪亂飛、帝都는 無氣味한 氣運에 싸이다

▲二月二十九日

▲드듸여 叛亂部隊는 叛徒로되여 戒嚴司令官은 斷乎이를 武力彈壓하기로 決定하고 午前六時 左와如히 發表하다

戒嚴司令部發表第二號

本職은 玆에 戒嚴令第十六條全部를 適用하야 斷乎 南部麴町區附近에서 騷擾를이르킨 叛徒의 鎭壓을하나 이地區로써 影響이 크지안흘것을 豫想함으로써 官民一般은 兵力出動의 目的을 잘諒解하야 特히 冷靜하기를期함

繼續하야 武力解決事情에 對하야 發表가 잇고 九千萬國民 肅然하게되다 朝來 戒嚴區域의 交通機關全部停止

▲午前八時十分 戒嚴區域의 市民은 撤退

「兵에게 告함」의 歷史的 論告가 發表되다

▲午前十時參謀本部附近에서 下士官兵約三十名이 爲先歸順

▲午前十一時卅分 叛軍의 大部分 歸順

▲午後四時十分 [illegible]

▲夕刻 叛亂軍幹部의 最古參 野中四郞 首相官邸에서 自決

▲午後四時五十分 岡田首相生存하엿다는旨 發表

▲午後四時五十分 事件關係將校免官

▲夕刻叛亂軍幹部의 大部分 衛戍刑務所에 收容되다

▲當時朝 麻布三聯隊 天野武輔少佐는 叛軍說服不成功에 自責하고自殺 又步兵一聯隊 [illegible] 曹는 討伐部隊에 參加하야 義하다고 思하는 드렐마에서 自殺하는等 悲壯한 事件이 發生

▲三月一日

▲市內全然平靜

▲陸軍首腦部 事件善後措置에 關하야 協議開催

▲大阪灣에 集合한 第二艦隊는 二十九日午後出港

▲三月二日

▲午後半 樞密院御前會議開催

▲午後三時二十分 叛亂將校의 位記返上發表

▲三月三日

▲陸軍首腦部軍事參議官進退伺를提出

▲三月四日

▲緊急勅令으로써 東京陸軍軍法會議特設되다

▲午後一時戒嚴司令部로부터 事實經過를發表

▲午後二時二十五分山本又少尉自首

▲水戶宇都宮部隊로부터 上京中의部隊一部歸還

▲三月五日

▲午後一時二十分 廣田外相에게 組閣大命降下

▲三月六日

西義一大將 敎育總監에 親補되다

▲林銑十郞大將 [illegible] 大將待命發表

▲午後三時半 植田大將關東軍司令官兼駐滿全權大使에 親補되다

▲叛亂軍幹部 [illegible] 廣院分室에서 自決死亡

▲三月九日

▲午後八時廣田內閣成立 寺內大將陸相에 永野大將海相에 就任

▲三月十日

首相官邸에 初閣議

▲待命中에 林前陸相 豫備役에 編入

▲閑院參謀總長宮殿下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에 對하야 陸軍으로부터 御留任을懇請하다

▲午後九時戒嚴司令部로부터 西田以下民間側의 關係者百五十九名을 拘留發表

▲三月十六日

▲甲府及 佐倉으로부터 上京中의部隊 一部歸還

▲中野電信隊의 相澤五部軍曹事件을 愛憐하고 自決

▲叛亂軍에 參加한兵 千三百六十名中 千二十數名의 留置를 解除하다

▲三月十八日

▲戒嚴令一部緩和되다

左記以外의 集會는 許可되다

一、治安警察法第一條及第四條에서 屆出을 必要로하는集會

二、二、二六事件에 關하야 議論하는集會

▲三月二十日

▲宇都宮高崎、水戶에서 上東中의部隊歸還

▲三月二十二日

▲本事件責任者의處分 中央部의大異動發表

▲三月二十八日

事件關係者責任者의 處分 佐尉官級異動發令

▲三月卅日

▲關係部隊中隊長級異動發令

▲四月三日

▲戒嚴司令官更迭 岩越恒一中將親補되다 香椎浩平中將待命

▲四月五日

▲甲府佐倉에서 上東中의 殘置部隊歸還

▲四月七日

▲今日부터 肅軍徹底의 軍司令官師團長會議開催

▲四月十八日

▲本庄、林大將等 豫備役編入

▲四月卄九日

▲天長節觀兵式御取止 ▲天長節祝賀集會는 特히 戒嚴司令部에서許可

▲五月四日

▲開院式擧行 二、二六事件에 關하야 恐懼不堪하다는 勅語를拜함

▲五月七日

相澤中佐에게 死刑判決

▲五月八日

▲相澤中佐高等軍法會議에 上告

▲五月九日

▲河野本部隊 [illegible]

▲五四二十八日

▲軍部大臣任用資格은 現役大中將에限定

▲六月二日

▲戒嚴令下에잇서 集會等은 二、二六事件에 關한以外 全部解除

▲六月三日

▲戒嚴部隊의交替發表

▲六月四日

▲新戒嚴部隊 「第十四師團의 一部」入京

▲六月五日

戒嚴部隊支隊엇시退去

▲六月十五日

▲首相官邸의 衛兵百三十日만에 撤去

▲六月二十日

▲仙臺、若松、新發田、村松、高田에서 上東中의 殘留部隊歸還

▲六月二十日

▲相澤中佐의 上告棄却判決

▲七月三日

▲海軍省의 陸戰隊撤去

▲七月五日

▲相澤中佐死刑執行

▲七月七日

▲東京陸軍軍法會議에잇서 二、二六事件直接參加者의 判決言渡

▲七月十日

▲午前十二時右에 關하야 陸軍省에서發表

▲七月十二日

▲待命中의 香椎中將以下十三名豫備役編入

▲七月十二日

▲香田淸貞以下十五名의 死刑執行

▲七月十五日

▲閣上勅令案樞密院本會議에서可決

▲七月十六日

▲寺內陸相參內 戒嚴令停止에 對하야 上奏

▲七月十七日

▲定例閣議에서 戒嚴令停止緊急勅令公布手續完了

에軍、果然反擊!

雨期에드러서到處에서 게릴라戰演出

그總督重傷은事實乎

【巴里十六日發同盟】 伊太利軍의 一征의 軍事工作은 大團圓을 告하게됨에 따라 首都入城에 依하야 에디오피아 全土를 占領한것이라 觀測되든이 最近 雨季에 드러서자 에디오피아 民軍은 果然反擊으로 轉하야 到處에서 게릴라戰으로 伊軍을 괴롭게한다고 傳한다 伊太利政府當局은 右放送을 熱心으로 否定하여오나 [illegible]

人面錄

◇ 得意의 못솔리니氏、制裁撤回를 가르켜 正義의 勝利라고 大氣焰。

◇ 拳力으로 弱者를 못지르는것이 「正義」라는 新定義로 通하도록 正義이는것이 파시스트의 倫理인가?。

◇ 또한 로카르노會議에 參加안는 代身、伊獨을加한 五國會議를 열어 베르사이유、로카르노 두條約을 解消하고 新協定을 締結하자는 爆彈宣言을伊首相이考案!。

◇ 잘못된 條約은 얼른 고치는것도조커니와 第一爆彈、第二爆彈번가려가며 내던지는 히틀러 못솔리니의 發火役뒤로 쫏차다니며 消防隊노릇하는 英佛政治家의 꼴이 可憐!。

◇ 藏相의 公債增發反對를 認識不足이라고 軍部에서는 不滿。健全財政과 軍費擴充은 運命的인 氷과 炭이런가?。

먼저 廣東을 討伐코 廣西를 다음 解決

蔣介石氏 對西南作戰

【廣東十六日發同盟】 中央側은 薛岳의 廣東文、江西의 陳誠、湖南의 湖宗南、薛岳、貴州의 顧祝同을 各各當該方面軍總指揮로 西南包圍討伐을 進行하고잇는데 湖南江西의 中央軍은 이미 北部廣東에 向하야 進入을 開始하고 東部福建省境의 蔣鼎文軍又第九第八十兩師主力에게 廣東進入을 開始하엿다는 報道가잇는바 各方面의 情報를 綜合하면 蔣介石氏의 對西南作戰은 爲先廣東을 解決한後 廣西에 미치려는것이 明白하여젓다 따라서 貴州의 中央軍은 當分間廣西軍과 側面을 牽制하고 湖南軍은 專혀 廣西軍의 同省進出을 防禦함에 잇다 이에 對하야 西南側은 廣東戰線을 短縮하야 防禦主義로 廣西側은 自己保存을 爲하야 中央軍의 廣東攻擊을 奏하여도 又 湖南省南部에 進擊하지 아니치 못하게되다 그리고 廣西要人은 廣東의 形勢가 不利케되면 廣西軍은 全省民團軍을 組織하야 게릴라的 戰法에 맛기고 正規軍全部를 廣東에 옴길 方針이라는바 交通不便한 地方에 大軍의 迅速한 交代는 不可能함으로 實現은 困難할것이라 한다

中央軍四十三師 廣東省境을 突破

【廣東十六日發同盟】 湖南에 잇는 中央軍先頭部隊第四十三師는 十五日夜 드듸여 廣東省境을 突破하고 十六日朝에는 廣東省北部 [illegible] 에 入城하엿다 廣東軍은 事前에 同地方에서 撤退하야 아직 戰鬪를 交하지 안햇스나 中央軍 第一第二第三第十八第八十九等各師도 前敵總指揮陳誠氏의 指揮下에 廣東省北部로 進入中이다

英皇帝狙擊犯人 頑强히 犯行否定

犯行未然防止는 警官의 功勞

【倫敦十六日發同盟】 英國皇帝狙擊未遂犯人은 곳 스콧트란드 야드 警視廳에 收容되엿는데 犯人은 조지 안드루·마크마혼으로 判明되엿는데 當年三十四歲 新聞記者라고自稱하며 [illegible] 年男子이다 取調官에 對하야 에드와드八世陛下를 暗殺하려는 計劃을 한일도업고 全然그런 行動을 할 意圖도 업다고 頑强히 否定하여잇다 目擊者의 談에 依하면 今日英國皇帝狙擊未遂犯人은 어드와드八世가 皇帝의 公園下를 거나리시고 六千의近衛步兵을 指揮하시고 大閱兵式場에 몬스트 近衛兵營門을 出御하시와 十九米突 前進하시엿슬時에 이러난것으로 犯人은 皇帝에 가까운 觀衆의 列中에서 뛰여나와 皇帝께 向하야 短銃을 겨누려하든 刹那 犯人의 反對側路上에서 警戒하고 잇든 五名의 警官이 [illegible] 말에서 뛰여 [illegible] 犯人은 短銃을 行使하랴 [illegible] 陛下께 미치지는 못하엿스나 陛下 [illegible] 未然에 防止한 五警官의 行動은 [illegible]

英皇帝平常대로 執政

【倫敦十六日發同盟】 英國皇帝狙擊事件이 發生한것은 十六日午後零時五十七分(日本時間午後八時五十七分)인데 陛下께서는 何等 [illegible]

皇帝狙擊未遂犯人 警視廳서 取調

【倫敦十六日發同盟】 英國皇帝狙擊未遂犯人은 現場에서 即時附近 [illegible] 警視廳에 送致되야 取調官이 取調를 開始하엿다 犯人의 [illegible] 犯行動機等은 一切判明되지 안는 模樣이다

駐蘇大使를 更迭

後任으로 重光前次官

【東京電話同盟】 有田外相은 目下의 外交時局의 中樞가되는 蘇聯外交에 鑑하야 就任當時부터 駐蘇大使의 更迭을 考慮中이든바 今回 [illegible] 日蘇間의 諸懸案을 一擧에 解決할 重大決意를 [illegible] 하게되엿다 따라서 이日蘇外交의 重大性에 鑑하야 駐蘇大使의 更迭을 斷行하기로되여 現駐蘇太田大使를 召喚한바 同大使는 來七月二十八日 莫斯科를出發하야 歸國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其後任에는 前外務次官 重光葵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近近아그레망請求手續을 取하기로되엿다

各局豫算案、廿日까지 財務局으로提出

八月初부터查定開始

總督府明年度豫算編成은 目下各局에서 經費編成을 急히하고잇는데 大體의 成案을 어덧슴으로 各局에서는 再三日中 局議에서 正式決定하야 二十日頃까지에財務局에 提出하기로되엿다 따라 財務局에서는 來二十三日 神戶入港하는 幽崎丸으로 歸還하는 水田司計課長의 歸任을기다려 八月初에財務局의 查定會議를 開催하고 豫算提出된 國策先議豫算을 第一着手로 順次各局 提出豫算書에 基하야 查定에着手하야 八月中에 明年度豫算大綱을 決定할려이다

西南派執監委員會 自八月一日二日間

【廣東十七日發同盟】 西南派中央執監委員會의 非常會議는 八月一日부터 二日間에亘하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執行部及政務委員會는 即日그召集準備에着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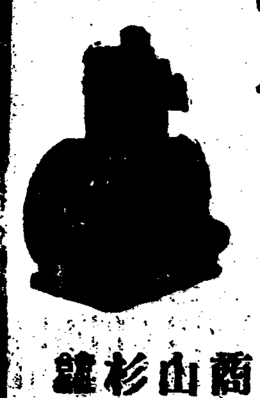
몬트로會議 殘餘諸問題處理

【몬트로十六日發同盟】 海峽條約討議會議는 十六日午後八時스탄돌레議長司會下에 海峽委員會의 廢止 其他殘餘의 諸問題에 對하야 審議를 遂하고 各其左와如히 決定하얏다

一、海峽委員會는 土耳其政府의 主張대로 廢止

一、非海峽地帶의 上空通過에 對하야 土耳其政府는 其通過를 禁止하려고 强硬히 主張하엿스나 英佛兩國政府의 主張을 容認하고 當初의 主張을 緩和하야 結局 海峽地帶及 黑海上空通過를 禁止하기로決定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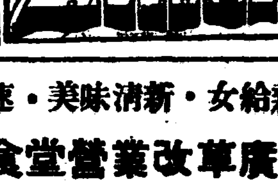
그리하야 新條約草案全文二十個條의 審議를 終了하고 伊太利가 參加할수잇도록 餘地를 남김 新條約에는 伊太利代表參加를 待하야 다시條約文의 起草를 委囑하고 同十時散會하엿다



恩給 貸付 京城府 鄭商會

金 白 福 銀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 電話 一三一四番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訂正 昨十七日附朝鮮日報夕刊第一面 東洋通信社 [illegible] 廣告中 內規道程 [illegible] 訂正함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設備內容共 東洋第一
生徒募集 就職無料斡旋
所長 元京畿道運轉者試驗主任警部 溝兒良 經營
京城府若草町大通 電話 ②五五三番

親切·女給 新鮮·美味 迅速·料理
韓靑食堂營業改革廣告
從來의 모든 缺點을 一掃하고 今般 最新式尖端의設備로써 果然名實相副한 京城唯一의 大食堂을建設하엿사오니 社會여러분께서는 매우 만히 指導愛護하여주시옵소서
追而 저의 食堂看板이 大衆食堂인 點에서 엇던분은 오시기를 躊躇하시는분도 잇슬으로 社會의高客과 家族손님에 出入을 爲하야 特別室을 따로 設備하엿사오니 安心하시고 오시옵소서。
外部配達도 一體謝絶 (電光八番)

淋疾 蔘茸五淋錠
朝鮮靈藥研究所
振替京城 二三四六番

癌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院長 醫學博士 [illegible]
京城北米倉町九四
電本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

三南一帶豪雨繼續
本格的인 雨期에
北部中部에도 小量의 降雨
昨夜의 各地降雨量

예년의례로보아 오늘아츰까지 계속해서 나리는비는 서울을비롯하여 강릉(江陵)、전주(全州)、부산(釜山)、울산(蔚山)등지에 폭우가 퍼붓고잇는데 그중 중부(中部)이남은 어데나 십수「미리」이상에달하고 특히 경상북도지방은 사십「미리」이상이나 나리고잇다 그리하여 남조선지방와 개울과강은 어데나 범람할 염려가잇서 경계하고잇는중이다 그리고 십칠일 오전여섯시까지 각지의우량은 다음과갓다

新義州一 雄基一 平壤一 仁川一六 秋風嶺三 京城一四 大邱四七 木浦七 釜山三六 淸州一九 蔚山四〇

中部와北部는 依然旱魃繼續
적어도七八十粍의降雨가時急
南部는 이번비로充足

한때 한발로 남북조선각지방이 소동을하든 그뒤의 사정을보면 남조선은 비가넉넉하엿스나 경긔이북 중부지방과 서부지방은 비가모자라서 다시 한발소동을 하게되엿섯는데 근일에와서 남조선은 다시 비가만히 왓스나 중부이북은 아직도한발로 비도 업는더운 볏만이 내려쪼이어 농가의 수심은 한층더하고잇다。 경성지방은 련일음울한날이 계속하다가 십륙일 밤부터 비가 내리엇스나 우량은 불과십사미리이고 또이번비는역시 중부이남이 만히왓슬뿐으로중부이북은 비의은혜를입지못하엿다 그런데 그간농작상황을보면 남조선은그후에 수차의비로입부에는 장마가지게까지 되여서전일의한발영향은 거이완전히회복한셈이나중부이북의 경긔 강원 황해 평남네도에는 아직이앙을 못한곳이 약입할으로에 畓만여정보가량으로 이면적에는 대용작물(代用作物)을 심은 다해도 희망업는곳(천수답)이 대부분이고 또이앙을 필한곳이라해도 물의부족으로벼의성육이원만치 못한곳이 만타 그래서비가와도 최소한도도 칠팔십미리내지 백여미리는 내려야할모양이나 좀처럼비가더옥족도하자안허 중부이북농가에서는 아직수미를 펴지못하고잇다 그러고전긔네도중에서도 이앙성적이 불량한곳은 황해도와 평남량도이다

平壤에小雨

【平壤】 삼십륙도가넘는 염열지옥에서 허덕이든 평양일대에는 십륙일 오후일곱시이십오분부터 숨이차게 기다리든 일천백만놈의 비가나리기시작하자 우울햇든 시민은 어린애들까지 「야ㅡ 비온다 밤비가온다 돈비가 온다」 고함성이 일시에 터저나아 왓스나 겨우 몬지만 개이게햇슬뿐 농작물을 소생케할정도의 비는 오지안코 불과 수십분동안오다가 말어 우울의 해소는 도못되엿다

裡里에千金雨
今年豐作을豫想

【裡里支局電話】 전북리리지방은 그동안 한발이줄창계속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수미를펴지못하고 불안에싸여잇서 아직이앙도못한 곳도만엇섯는데 지난십륙일밤열한시부터 비방울이떨어지기시작하더니 이튼날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우가내려 십칠일오전 열시까지 오십오「미리」가 퍼부엇다 갈우를 고대하든 일반농가의 기뻐은물론 이번가튼 풍우한우량이 계속된다면 근년농형은 풍작을 예상한다고한다

轢殺兩件

도긔차에치여 죽은참사두가지ㅡ

…【1】…십륙일 오전아홉시이십분 함경선조마산(造麻山)ㅡ봉강(鳳岡)사이 원산(元山)긔점사백오십륙「키로」이백미돌부근선로안에서 동무들과 놀고잇든 명천군동면룡암리(明川郡東面龍岩里)최상학(崔相學)의 셋재딸 봉련(三)소녀가 때마침지나가든 성진(城津)을떠나 청진(淸津)으로가든 오백사십칠호렬차에 치여서 즉사햇고。

……【2】……또 가튼날 가튼 시간에는 김천(金泉)을떠나 대구(大邱)로가든 구백팔호렬차가 부산(釜山)긔점 백팔십구「키로」오백미돌부근을 달리여 가든중 김천군농소면신촌리(金泉郡農所面新村里) 남규도(南圭道)(三○)라는 로인이 치여서 역시즉사를 햇다한다。

뻐스가轢人

십칠일오전 열한시 오십분경에시내수은정(授恩町)네거리에서 시내창신정(昌信町)긔구번지리재복(李在福)(二七)이가 운전하는경(京)시내봉익정(鳳翼町)구십사삼호 「뻐쓰」에시내 경운정(慶雲町)[illegible]의 로인이치여서 왼쪽허리와 팔에 부상을입고 방금적십자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自動車끼리
正面衝突
府廳압交通事故

십칠일 오전 여덟시 이십분경 태평통(太平通)경성부청(京城府廳)압에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정면으로충돌한 교통사고가잇다 조일(朝日)자동차의 리용수(李龍洙)(二〇)가 경제구천사십사호를 운전하야 무교정(武橋町)에서 남대문통(南大門通)방면으로 질주하든 동정 전긔 지점에서 맞춤 태평통(太平通)에서 황금정(黃金町)으로 가든 소화(昭和)자동차 경제구칠백번 차와 마조 부다친것이라하는데 다행히 자동차가 모다 대파하는 상해자는 업섯다한다

짝사랑脅迫狂!
再起를圖謀하다가잡혀

십륙일 오후열한시반경에 시내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 어떤여집 문이때서 머릿거리는 수상한 청년한명을 서대문경찰서원이 발견하고 본서로 데려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시내신당정(新堂町) 삼백사십팔번지의 십칠호에사는 리수동(李壽同)(二三)으로서 수년전부터 시내모녀자전문학교학생을 로상에서보고 자긔혼자 짝사랑을품고 수십통의 강박한 협서를 던저오다가 이내소원을 발치못하고 못내는 돈까지내라고 협박장을내어던다가 지난오월상순에 역시 종로서에 붓잡혀서 십오일간구류처분을당하고나온일인데 그후그래도짝사랑을단념할수업서계속하야 협서를 던지다가이날도역시결국 비용으로이백원을 준비하야 가지고 그시각에준비하야가지고 그시각에 기다리라고 제멋대로의 편지를 띄워노코 전긔와가티 맛나려고 하던것이 딴뒤되여 종로서에서는 순진한 녀학생을 괴롭게하는 그소위가 가증도하거니와 한번저벌을당하고도 오히려 고치지안는저인 만큼이번에는 아주단단한처벌을 내릴모양이다

容疑者三名의所在를
猛熱히探索活動
興町强盜事件의眞犯人으로指目?
鍾路署刑事隊東馳西驅

서대문서와 종로서관내에서 세차례나 중국인재조수상(?)의 집을 습격한강도범인에대하야 십륙일 밤시내 종로서 사법계에서유력한 혐의자리○○(二三)외 김○○과 홍○○의 세명을 수사중이라는바 아직도 그들이 체포되지안흔 모양으로 리○○는 의주통(永井)주임이십의 자신을가지고 형사대를가방으로 달려서 전긔리○○(二)의 소재를 매일러람시중이다 이들의 용의자는 이번 강도가 중국인을 정하고 습격한 점에 초점을두고 째아내것으로 거지진범인에 틀림업스리라하며 결국 이문제의 범인이 종로서에체포될듯이보인다

汽船一隻浸沒
明川上古海岸서

【明川】 하관시죽기정(下關市竹崎町)림겸선박부(林兼船舶部) 이십오신생환(二十五新生丸)은 하관을떠나 여러곳의 포구를 거처서 최종점인 청진(淸津)까지 이르러 화물을모다 하륙하고지 난십사일밤에서 하관으로 회항하는중 때마츰 운무가심한 밤절경에빠저 암초에 부닥처 배가 물을 노아가 [illegible] 장방화사 [illegible]

朝鮮劇場放火犯
懲役八年言渡

쟁의로인해 해고를당하고 분개하야 극장에다 불을노아다는 조선극장 명의로 도태되든 명성(明星)의 관련자 [illegible] 그중 고두판(高斗判)등(?) 삼십일 번에 [illegible] 징역팔년을 언도하엿다

鐵紡工事入札期

【全州】 일본공사비륙만여원예산으로 착공준비중인 전주농방공사(全州鐵紡工事)는 오는이십일 전주부청회의실에서 입찰을하리라고한다

初伏날各地氣溫
一般으로一度乃至三度上騰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돗기만하야도더운 초복(初伏)으로와라 이제관측소조사의 초복날의 각지기온을보건대 보편적으로 일도내지삼도가 놉다는 대 각지금일현재의 온도는 다음과갓다 한다

▲中江鎭一八度(一度高)▲新義州二二度(一度高)▲平壤二二度(一度高)▲仁川二二度▲京城二二度 一▲全州二七度(三度高)▲淸州二六度(二度高)▲雄基一二度 ▲城津一八度 ▲元山二二度(一度高)▲江陵二三度▲秋風嶺二二度▲大邱二三度▲釜山二五度 ▲蔚山二二度

―더위를 훌처내는 藥水―(初伏날 南山藥水터에서)

發生五百卅三名中
死亡이八十二名
昨年中京畿道管內의赤痢禍
兒童의犧牲이最多

적리환자는 십세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만코 그사망수도역시 제일만타 작년일년동안에경기도안에서 발생한 적리환자는 오백이십삼이고 사망자는 팔십이명인데 그가운데서 오세미만 아동환자가 일백칠명이엿고 사망자는 이십일명이엿스며 십세미만 아동환자는 구십칠명이고 사망자는 이십일명이엿다 그래고 그는 일월부터 큰실까지 발생한 환자는 최신사명이고 사망자는 십이명인데 그가운데오세미만아동환자가 이십일명이엿스며 사망자는여섯명이엿고 십세미만아동환자는 두명이엿다 이와가티 금년반년동안의 추계만을 보드라도 사망자 열두명가운데서 여덜명이 십세이하의 아동이엿슨즉 일반 가정에서는 요지음 적리병유행시절에 당하야 반드시 예방약을 먹이도록 하는것이 조켓다한다

鐵道局陶汰斷行

철도국에서는 종업원들의 하긔쇄신과 능률증진을 시키기위하야 조동사중이라한다

女店員飮毒
生命危篤
原因은孤獨病의發作

십칠일 오전두시경에 시내도염정(都染町)사십륙번지 유덕자(兪德子)의 집에세방을 들어잇는녀점원 리영희(李英姬)(一九)(假名)이라는 처녀가 『칼모친』을먹고 자살을 하려 고민하고잇는것을 점원으로 겨우버려먹고 살아가던중 극도로 고독을 느끼나머지 그와가티 죽으려던것이라고 한다

濃霧에싸여
發動船二隻遭難
仁川署警備船出動中

【仁川】 십칠일 오전팔시이천에 입항한 복양환(福洋丸)선장으로부터 인천서에 조난선보고가잇서 인천서경비선이 현장으로급행하얏는데 동보고에 의하면팔미도(八尾島)에서 안심하리떠려 저잇는 지점에 악천후가탕되는 발동선이 조난되여잇고 그뒤에 또한 소형의 발동선이 조난을 당하고 잇다는데 인명의손상은 물론 피해액도 적지안흐리라하야 방금경비선 작현(鵲峴)이출동하야 구조중이라한다

京城府桂洞 水王産婦人科 醫師 李麟承

天氣豫報

概況 七五六머리의 低氣壓은 忠淸南道와 滿洲東部에잇서 徐徐히 東進하고잇다 七六四미리의 高氣壓은 日本南東方海上에서日本本州로퍼지고잇다 滿洲는大槪晴、朝鮮中央以北은曇、京畿道以南은雨天、朝鮮海峽은 조흔곳이잇고 日本內地는 曇天이다 오늘밤은 아직小雨가잇겟고來日은흐리다

報豫 오늘밤京城地方은 호리고 小雨가잇스며 來日도갓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九度 同最低 二二度六 今朝最低 二一度五 今日正午 二四度二

青年會學校
勤續先生表彰

부내종로(鍾路)중앙긔독교청년회학교(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의 근속 교원표창식은 오는스무날(월요일)오전 아홉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거행하리라는데표창의원은 현동완(玄東完) 리춘호(李春昊)허봉락(許鳳洛) 삼씨라한다

運動前哨

正規코ㅡ스卄哩
마라손試走
「二時間卅分」自信

【伯林十三日發聯合】 마라손代表選手孫基禎、南昇龍、鈴木 四選手는 十二日午後三時 「올림픽스타디움」을 스타ㅡ트하야 平沼競技場以下役員들의 注視속에 大會當日과가튼 코ㅡ스를 約二十哩를 本式으로 試走를行하얏바 各選手 모다 往路에 一時間廿分으로 驚異에드 안코 一時間卅分으로 스피ㅡ드를내이지 안코 孫君의戰勢를 올리어 先頭에나아가나 南、鈴木의 順으로 이를 追從하야 蹴蹴한을 올라가서 中止하엿다 그記錄은 二時間五分 정도하고 떠러저서 監視、南、鈴木의順으로 모다 二時間三十分前後로 全코ㅡ스를走破할 自信을가지게되엿다

延專蹴球團北向發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關北地方 遠征의計畫中이든 延專蹴球團一行十七名은 林炳敎敎授引率下에 十七日午前八時二十分 京城驛發列車로 元氣旺盛한가운데 出發하엿다 一行은 同日午後二時五十五分에 元山到着 十八日에는 元山蹴球團과 遠征第一次戰을行하기로되엿다

全朝鮮綜合競技
水上大會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水上競技는 來九月五日과 六日兩日間 京城府營풀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이大會는 從來의 朝鮮體育會와 水上競技協會의共同主催이든것을 綜合競技大會에編入한것으로 競技는 中等學校對抗과 一般部에나노아行하기로되엿다

京城醫專野球一勝

全日本實業專門學校野球聯盟九州選手에 出場한 京城醫專팀은十五日第一回戰에 西南學院軍과對戰하야 八對二로 京城醫專快勝하엿다

西南	200000000
京醫	00001120 8…2

都市對抗全京城軍
來卄二日夜出發

來八月一日부터 東京에서 開催될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에 朝鮮代表로 出場하는 全京城팀은 來卄二日午後十時五分京城發列車로出征할터이라고한다

對印度갈카타戰
中國蹴球代表勝捷

【갈캇타六日發】 世界올림픽出征途上에잇는中國蹴球代表팀은 六日에 印度갈캇타選拔軍과 對戰한바 降雨中에 接戰을演하드니 結局二對一로 中國軍이이겻다 이날李惠堂君은 單獨二點을넣엇다

朝鮮軟式庭球代表
來月一日、伊勢에

八月四日부터 宇治山田市에서열리는 伊勢神宮軟式庭球大會에出場할 朝鮮代表는 다음의五組를選拔하엿다는데 一行은 八月一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車로 出征할터이라한다

【能野組】崔永生 【宮崎】 【福岡】仁【鄭士連】【朴龍善】 【慶東律】【黃基成】 【淺野】【渡邊】

早大野球團歸校

【橫濱】 지난五月에 渡米하야米國各地에서 大學團과 對抗한 早大野球團一行十四名은 二十二戰十五勝七敗의 好成績을 남기고 十五日午後五時 橫濱入港의 郵船秩父丸으로 歸校하엿다

運動界人事

▲李仁圭氏(朝鮮蹴球協會理事)이번에 開城서열리는 蹴球大會에審判次로 十七日發列車에 ▲金命源氏(同蹴球協會理事)同上

HEMOCAIN
鎭痛鎭靜 鎭痙鎭咳 新藥 ヘモカイン
一cc一〇管入 一cc五〇管入 一cc一〇〇管入
京城府 鍾路
總販賣元 三省聯合新藥研究所
全鮮各藥房에서販賣함

有給社員採用
中等學校卒業程度以上의男女若干人 但市內地理에通하고外交手腕이有한人으로履歷書携帶本人來談
京城府林町八二番地 商工案內社
電本五三三四番

朝報案內

訥言研究矯正院
不治已訥言도完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西界町九ノ六

말더듬이

朝鮮防水布製造所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京城光熙門外新堂町
電話本局 一〇一二番 振替京城五三〇七八番

雨衣都散賣
우장옷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ㅡ준비되엿습니가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胃腸病仙藥 神秘丹
大血達救心丸(合) 本舖 景春堂

夏節用人絹자투리特賣!
一、立縞又는格子ボイル 無地二ツ入ボイル 今年度鮮內有名會社製品(最新品豐富) 一口各八反分 百二十碼
二、唐亢羅 三本絽 五本絽 甲、碼上一口 拾貳圓
三、人絹紗類 熟考紗 眞珠紗 花紗仁 生華絽 各種指定色撰定得 乙、碼下一口 六圓五十錢
年一回의奉仕!
見本은一種一部切手 鮮內各社委託販賣元 正益社 織物部
先着順五百口에限하야鮮內各地送料本社負擔(代金引換은一口에要先金一圓) 社員入用
府內鍾路二丁目四二
電話長光三六番・振替京城二〇七六一番

乙好 子ll 乙好 粉 朝鮮 京城 乙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陸地測量部發行 目錄呈 五万分一地図販賣元
京城府公平町一二 (三信商會) 東亞商會
振替京城一五三九六 電光三六二三番

원수에서 친구로
어떤 임군이 변방에 난리가 생긴것을 듯고 대신들을 향하야『집은 이것을 속히 처서 진멸식켜야하겟다』고 말하엿다 그리고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토벌하려 나가섯다 적군은 그만 산산히 패하야 항복하엿다 대신들은 왕이 대적의 무리를 엄히 벌하야 처단할줄로 알앗더니 그 항복한자들을 로히려 자비로써 대우함을 보고 대단히 놀나서 상히 녁이는 말로『폐하께서 이러케 원수를 대우하심은 어옴에 말슴하신것과 다르지 안습니까 폐하께서 전에 집은 이것을 속히 처서 진멸시켜야 하겟다고 하섯습니도 불구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도로혀 원수를 사하시며 또 저희를 애휼하심은 어쩜이니까』하엿다 왕은 아주 확정한 태도로 대답하기를『집이 진멸시키겟다고 말하엿스나 원수를 다 비록 원수를 진멸시키겟다고 경들에게 말하엿스나 이와가티 주의할것은 저들이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라』말이다』하엿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범죄하야 원수가 된 우리를 다 가려 처서 진멸하시련것은 그와 공의상 엇을 이할지어니와 그 번들을 진실히 회개한 후에는 저희를 도로혀 복상히 녀기고 사랑하사 죄를 사하시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만흔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는것이다

參茸精
四時長春인補血壯强劑
世界的高貴補藥인「參茸精」을 服用適切
人蔘과 鹿茸의 天然成分을科學的으로 精製함에 人體의 精液이 流失되며 水分을 供給하며 生氣를 回復케하는 强壯劑이올시다 寒暑를 勿論하고 老少男女 누구나 服用하실수 잇습니다 精力을 增進하고 身體를 健康케하는 精神의 要藥입니다
參茸精을推薦하신九位醫學博士(無順)
京城帝國大學講師醫學博士 佐藤寅夫先生
醫學博士 林 □ 先生
醫學博士 今村 豊八先生
醫學博士 小村 榮三先生
醫學博士 金 永 植先生
京城帝國大學講師醫學博士 李 甲 洙先生
醫專病院內科醫學士 金 東 默先生
仁愛醫院長醫學士 仲尾 榮 先生
醫專病院小兒科講師醫學士 金 光 鉉先生
◇效能◇ 補精強壯、補血强壯、精力增進、神經衰弱、히스테리ㅡ、貧血症、病後恢復期、產前產後、發育不振小兒、營養不良小兒
定價 二五〇瓦入 參圓 五〇〇瓦入 五圓
(全鮮各有名藥房에서販賣함)
京城府長谷川町 總發賣元 朝鮮商會 電光③一七八五番・振替京城一九二八七

團成社
十七日より 五日間 晝夜三回 入替無シ
▲透明光線 ユ社
▲アドルフ・マンジュウ主演 舞臺に立つ妻へ 一盤本映社
▲エノケンの靑春醉虎傳 P・C・L

映畫殿堂 全鮮第一
七月十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R・K・O・라듸오超特作映畫
世界的歌手 리리퐁 主演
戀歌 (I Dream too Much)
今夏代表的音樂映畫이以上대히音樂映畫中의最高位에올리스以後처음보는쇼프라노의絶唱을드릴수업다、闘屋敏子女史日、原義江氏日
◆R・K・O・라듸오超特作映畫
深夜의별 (Star of Midnight)
진저로자스 主演
◆日活超特作映畫
리ングの王者 ―(次週卄三日封切)―
曙・初戀、人形の冊
盛衰의밝、메로드의ツ연、百萬의感激、空中의뺨바、맹一生、情熱、片道의一生、靑春

病弱細胞를 賦活更生!

わかもと

와가모도

胃腸榮養

胃腸疾患

胃下垂·酸過多·下痢·便秘

胃酸過多에重曹 減酸症에稀鹽酸劑 泄瀉에止瀉劑便秘에下劑等을投與하는것은 要컨대 胃腸機能의異常에隨伴되여생기는 各種症候를 약간 抑制하는作用에 끈치며胃腸組織의 根本的正常化는 가장 至難한것이다。

그런데『わかもと』는 前記와가튼 末梢의症勢는重視되지안코 于先症勢의根源이되는 衰耗胃腸細胞에 賦活식혀 이것을正常的으로 回復식히며 또한 胃腸內에分泌되는 各種의消化酵素와 同種의 酵素를補給하며 消化機能을 强化함에依하야 胃아토니 腸가다루 便秘 泄瀉等을治癒에引導하며 消化를助長하며 食慾을 增進하며 胃部重壓感 胃痛 呑酸 及頭重 不眠 貧血 四肢冷感과가티스사로 消散식힐뿐아니라、榮養을補給하며 血液을新生하며 體重 精力을亢進식힌다。

『わかもと』發見以來 겨우 몃해를 지나지안흔 每日에本劑가 胃腸疾患治療의王座를占하고 널니學界의認識을獲得한것은 얼마나 將來의 對症藥劑에比하야 效果優秀한가를 代辨하는것이다。

衰弱諸症

食慾不振·貧血·削瘦·發熱

『わかもと』를 結核其他의 慢性衰弱病者에 投與하야 異數의 效果를認하게되는것은、本劑에依하야 胃腸機能을强化하며、삐타민A、B、아미노酸等의協力에依한 榮養을 增進식히는效果가 給與되야 特効가잇는것은 勿論이만지、特히 看過할수업는것은、病原菌에對한抗毒素、殺菌力의 增加에依한 積極的療能力의 賦與이다。

白血球가 모든 病原菌을 喰菌하는것은、이미 周知하는 事實이지만、『わかもと』의 投與에依하야 白血球의顯著한 增殖을보게되는것은 京都帝國大學의 受驗發表에依하여도 明確하며、따라서 白血球의 喰菌作用을 促進식히는 오푸소닌도增加식힌다、더욱이 本劑中의活性酵素는 衰耗되는體細胞를 覺醒賦活식혀、新陳代謝을旺盛케함에따라、互相의抗病力을、亢進하며、結核菌의勢力은 挫絕식혀發熱、盜汗을緩解하며、食思는誘發하며、衰弱의 恢復을速히하며、體重을增加하는等、效果는 그期待에 넘치는바가크다。——구아야쿨ー製劑、滋養强壯劑等에 依하야 겨우、患體의衰弱增進을 阻止식힘에腐心하는 感이잇스며、從來의 微溫的療法에 對하야『わかもと』의 出現은 이미 結核、慢性衰弱療法의 劃期的藥物로써 各臨床大家의 賞用을맛고잇는 所以이다。

わかもと에 代用藥 업다

『わかもと』는 上述한바와가티 優秀한 諸效果를 具備하야、他의療法에 依하야 滿足한 效果를어들수업는 慢性衰弱諸症에對하야 顯著한 實績을보이고잇는바、近來에 本劑의眞價가官廳當局을利用하야 해ー彌劑或은 삐ー루酵母劑의名을 借託식힌 類似藥續出、利益만을 追及하는 藥局中에는、이것도『わかもと』와同樣의 效果가잇는것처럼 宣傳한다、그러치만『わかもと』는 製法至難한 發賣特許藥으로 絕對로模倣을 許치안는다、名稱 特이 類似하지만 效果에잇서도 多大한 懸隔이 잇스며、各大學의權威잇는 比較實驗의 成績에 徵하야 明瞭한 事實이다。

小學敎育助成을위해

敎育掛圖寄贈引換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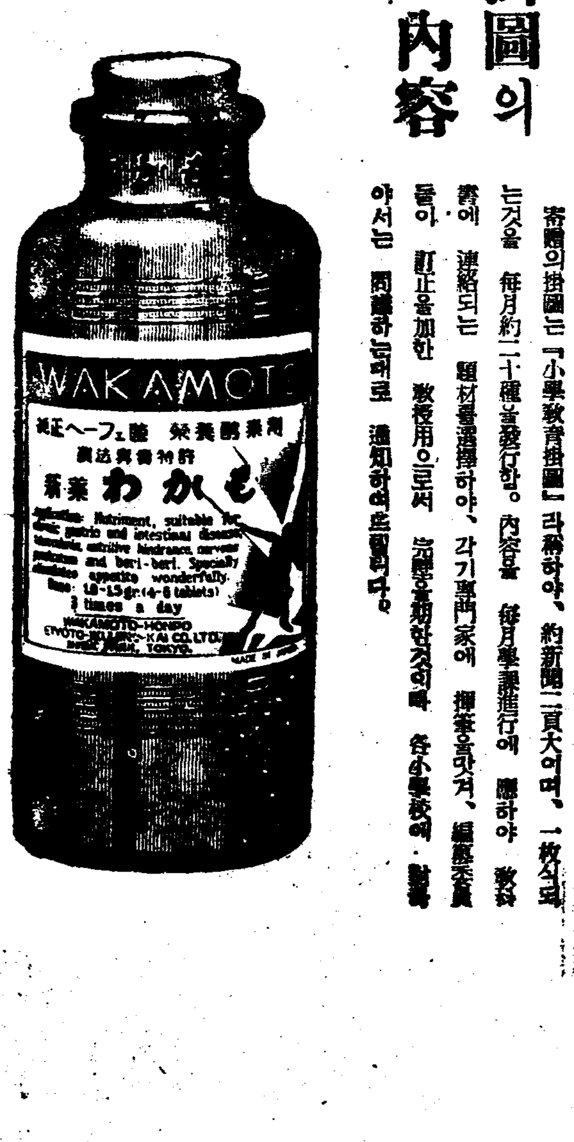
을活用하시라

小學校에서 必要한 敎授用掛圖가 良好한것이 적다、잇다하더라도 費用關係로 完備되지안흔 現狀에鑑하야、わかもと本舖와 育兒의會에서는 多少間이라도 小學校에 도움이되는 事業을 考慮하든中、今回全國小學敎育界의 權威들로된 敎育資料會의 編纂에依한 優秀한 敎育掛圖一百萬枚를製作하야 全國小學校에 寄贈키로되엿다

『錠劑わかもと』愛用하시는여러분은 一瓶마다添付하야잇는 掛圖寄贈引換券을 一枚라도헛되히하지말고 最處小學校에 寄附하기를 願하는바이다 小學校에서는 이引換券을 모와가지고 東京市芝公園十一號地敎育資料會에 送附하면 規定枚數에應하야 請求하신掛圖를 寄贈하여드림。

掛圖의 內容

寄贈의掛圖는『小學敎育掛圖』라稱하야、約新聞一頁大이며、一枚식되는것을 每月約二十種式發行함。內容은 每月學課進行에 應하야 敎授에 連絡되는 題材를選擇하야、각기專門家에 揮毫를맛겨、編纂委員들이 訂正을加한 敎授用으로서 完璧을期한것이며 各小學校에 對하야서는 同時하는때로 通知하여드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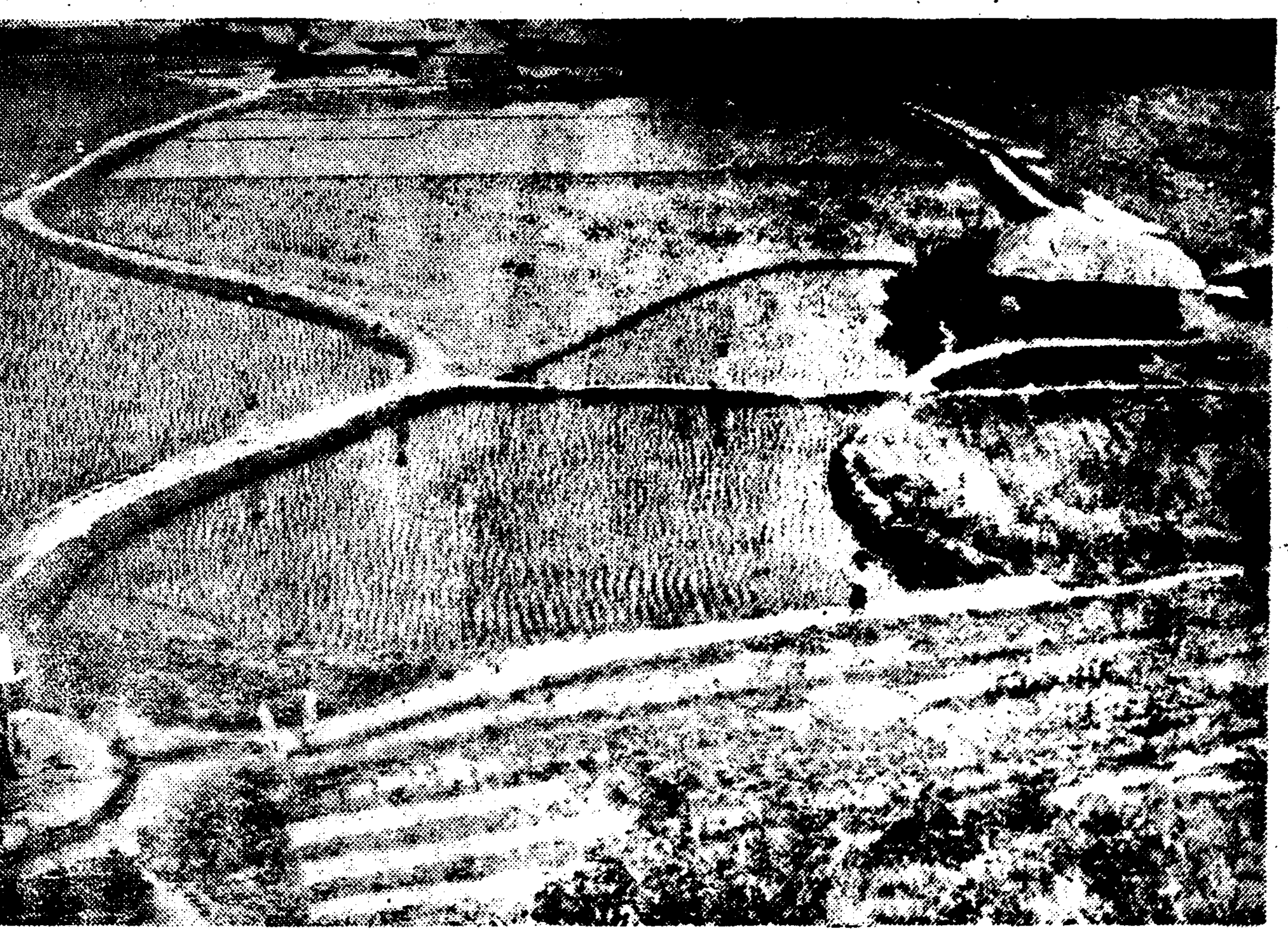
藥價低廉

粉末九〇瓦 錠劑三〇〇錠 一圓六十錢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振替東京一七〇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家庭



농촌석경

해외소식

나이가일만이천년

세상에서 자랑꺼리라고 하드는것은 대개 현재까지 사람의 눈에 뜨인것에 불과한것인데 「오-스트랄리아」「퀸슬랜드」한곳에잇는 「마크로자미아」라는나무하나는 키가 이십여척이지만 일만이천년이나 되엇다고합니다 「마크로자미아」라는나무는 오-스트랄리아 특산으로 「퀸슬랜드」외에 얼마든지 잇는데 이천년 이하되는 것은 업다고하니 얼마나 오래사는 나무인듯합니다

운전수의혈액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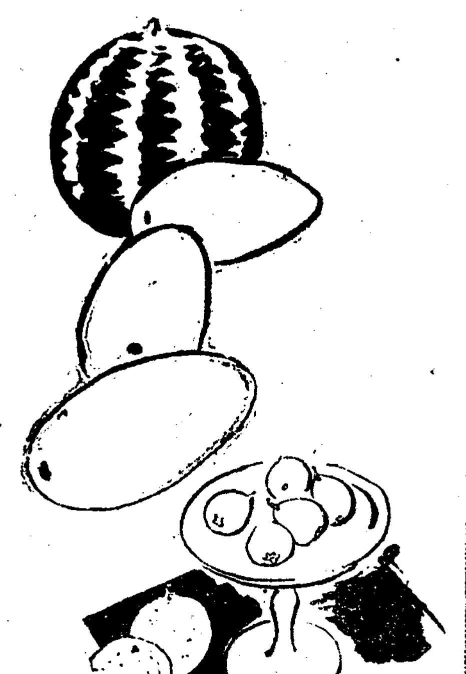
자동차사고는 대개 운전수가 술을 먹고서 위험선을 잘못 보앗다거나 「핸들」을 제대로 못 돌렷다거나 멀고가차운거리를 분간못하엿다거나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라하야 독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생기면는 당장 운전수를 잡아다가 혈액검사를 하야 알콜분이 잇고 업는것을 조사하게되엿습니다 이검사는 운전수의 손끝에서 뽑은 혈액을 「알콜드미르크」법에 의하야 그반응을 보는것인데 「알콜」을 몃정도 마시면 몃분후에 나타나는 것을 측정할 수 잇는 것입니다

근속구십구년

미국일리노이 농구론에와 노예사는 「콜리·마카-로네」와 「콜리 알마카-로네」 두사람은 원래장부이엿다 합니다 그런데 벌서 그 옛날에 두사람이 동시에 「콜리노이」철도회사에 입사한이래 두 사람의 근속한해수를합하면 벌써 아혼아홉해가 되니 당 두사람은 얼마전에 정년을 마지하엿다만 아직도 철도회사에서 퇴근안켓다고버티고잇습니다

사람머리는커야해

「영리한자는 어리석은자보다 머리가크다」는말은 전부터 내려옴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사는「주지사국제-치스」씨는「따라스」대학 회에 초대를 갖추지사들에게 대하야 그네의 모자를 진정을 작정으로 발행회사무총장을 각 주지사에게 보내어 머리를 재어보라 모두가칠인치반이상이고 「그레스리」씨인데 이분은 칠인치반 제일큰분이와오밍주지사 가안되엇다합니다。머리가큰사람에게서 장한사람이 난다는것은 과연사실이라고-야단들이라합니다



지나간일은 네살때 부터
나이따라변하는뇌수 엇던인상이오래갈까

긔억력이 아모리 조타해도 네살쩍 그이전것은모릅니다 그러나 네살뒤의 일이면 긔억력이 조치못한사람이라도 대개는 긔억하고잇는것이 만히잇습니다 그것은 대체무슨까닭인가

◇

사람이 죽은뒤에 그사람의년령에따라 그때그때의 뇌수의 무게를 다라보면 만네살을한 시기로해서 긔억의차이가 심한것입니다 가령말하면 남자의 뇌수의무게는 난지얼마안되어서는 삼백오십그람쯤밧게 안되는데 일개월이지나면 사백사십이그람, 만이년이되면일천백그람, 만삼년이되면 일천이백십그람, 이러케 차차로커갑니다

◇

만사세가되면 일천삼백그람이되여서 보통어른의 무게일천삼백구십그람과 그다지큰차이가업게됩니다 이것을다시엄밀하게 말하면 만사세구개월이되면 일천삼백사십오그람이되여서 그때부터는 잠간동안 변동이 업시 되는것입니다

◇

그러므로 인간의 뇌수의 발육은 만사세가되면 대체로 끄터나는것이므로 그전은 요컨대 뇌수미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눈, 코, 귀등의 오관도 뇌의 연장으로 볼수잇스므로 이러한 오관(五官)의 발육하는것도 역시 만사세가된 이때에와서 거의 완성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긔억에 오래남어잇는것이 뇌수발육이 거의 완성한 만사세의때이라면 뇌수발육경과중의 인상(印象)은 긔억으로서 기리 남어잇지안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사세의 아이는 아모리 천재라고 하드래도 보통성인과가티 두뇌의 활동을 하지못하는것인만큼 뇌수가 완성되다는것은 우수운말 가트나 이것이 소질상으로 완성하는것이고 경험상으로 완성한다는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소질상으로 거의완성한뇌수는 다시 남자의열八살때와 녀자의열八살때에서변동되기시작하야 남자이십세, 녀자 십륙세가되면 뇌수의발육은 아주 끄티고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발육정도는 남자가 사십그람쯤 붓는데비하야 녀자는 팔십그람이나붓는것입니다

◇

그러면 엇지해서 이시긔에와서 녀자가 남자의배나붓느냐하면 물론녀자는 생식본능이외에 육아본능이라는것이잇는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사세가되면 뇌수가완성을하고 완성이된뒤에는 인상이라는것이 길이 긔억에남어잇지만은 뇌세포가 분열하고 또한 증식하는동안은 긔억으로서 남찌안코 작구만 새로운 인상이생기는것입니다 그러나뇌세포의 분열이작구만 거듭하는데도불구하고 인간의 뇌수속에가피 백여잇는 인상이 잇습니다 가피이것은긔억이라고는 할수업겟지만 인류전체에게 희미한인상과가티 뇌세포가부터잇는것이잇습니다 가령말한다면 뱀에게대한 인간의 공포가튼것이 그것입니다 이로써본다면 일쪽이 우리네인류의조상이 진화해온과정에서 뱀과 만흔투쟁을해왓다는말도 사실이아닐까합니다 그래서그때의무서운인상이 아즉도우리에게 남어잇는것이 아닐까요

動物愛護談 ⑦
오리, 닭, 고양이의 두목인솔개 (一)

崔秉和

「선생님! 선생님!」 누구인지대문간에서 아버지를 찾는소리가 들렷습니다。

「누구시요?」하고 아버지가대문간으로 나가보시니깐 그곳에는 동리사는 농부가 아페서잇섯습니다。

「선생님! 토끼를잡으려고 감초아노흔 돗에가 새한마리가 치엿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새로 여간 사납게생긴 새가아니애요。 그래서 선생님께 보여듸리라고 가지고왓습니다」

이러케말하면서 농부가 아페내논것은 검은 회색비치도는 큰새엿습니다。

「따는 이상한새이구료。」하고 아버지께서는 농부에게 대구하시엿습니다。

「변변치 못하나마 선생님께서 짐생을 조와하시므로 드릴라고 가지고왓스니 바더두십시요。저이가튼 무식한사람이 길르면 무슨 소용이 잇겟습니까?」

「나를 준다면 고맙게밧겟소」

이러케해서 일홈도 자세히알수업는 사나운새는 농부의손에서 아버지손으로 넘어왓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동물학(動物學) 책을 차저보시니깐 그새는 솔개(鳶)의 일종인데 아버지께서는 이솔개를 길드려볼려고 하시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선 그새를 좁은상자에다가 가다놋고 조곰도 밧게못나오게 하엿습니다。그리고 아버지 이외에는 결코 다른사람이 음식을 주지안키로하시엿습니다。여섯주일동안을 이러케 계속하니깐 그사나운새도한결 순해저서자기의주인을 알게되엿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조금 자유를 주어도 관계업겟다고생각하시고 두날개쭉지를 단단히 붓드러 매서 조금도날을수업슬만치 하여노코 뜰에내노흐시엿습니다 두번재 해비츨 바로쪼이게된새는 퍽기쁜지 이곳저곳 껑충껑충 뛰여단엿습니다。 그리고 배가고프면 아버지께서 불는소리를 듯고 허둥지둥 그아프로 뛰여갓습니다。이러케하기를 여섯주일을 또 계속하얏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아조 자유의몸을주어도 관계업스리라 생각하시고 날개쭉지를단단히 묵거논 끈을 푸러주시엿습니다。그리고 목아지에다가 새주인의일홈을쓴 주석패를 붓드려매고 그밧에 작은 방울을다라노앗습니다。

새는 두날개를 활작피드니 고만 푸드득 날너갓습니다。

「아!」하고 아버지께서 붓잡으랴고 하시엿스나 때는 벌서느젓습니다。아버지께서 크게 후회를하셧스나 아모 대답도업섯습니다。그새가가는곳은 뒤산숩속이엿습니다。

「공연한짓을하엿구나。다시 저놈을 붓잡을재조가잇다고。」

아버지께서는 이러케 후회하시면서 몹시 섭섭해하시엿습니다。그날하로는 아버지께서는 정들고 또 공들여길른 새생각을하시고 퍽 언짠어하시엿습니다。

그날저녁때 아버지께서 편지를쓰시고게시느라고 새생각을 이저버리섯습니다。

그때—창아페 무엇이 몹시 부듸치는 소리가 낫습니다。아버지께서는 깜작놀나시면서 얼른 창문을여시니깐 후다닥새한마리가 날러드러왓습니다。방작방작비치고 딸낭딸낭소리가낫습니다。

비초인것은 목아지에딴 주석패、딸낭소리나는것은 방울에달은 방울소리엿습니다。— 그새가 제주인을차저 날러드러온것이엿습니다。새의지기를 귀해주는 주인을 이즐수업서서 도라오는듯하엿습니다

가정의화

랭으로고생하오

問 금년삼십오세 남자인데십여년전부터 랭으로인하야 음부가차고 때때로 좌편고환(睾丸)이 붓습니다 치료법을 하교하십을 복망합니다(黃海一讀者)

答 림질(淋疾)로 인한것갓습니다 가정에서는 근치하기어려우니 전문의사에게 측접치료를 바더야 낫겟습니다 림질이라면 속히나올수는업스니 그리아시고 오래동안 치료를 밧게하십시요 고환이붓는때에 행보를 하지말고 붕으로을 더울게하여 一% 붕산수로 찜질을하게하십시요 (聖母病院長 朴秉來)

내치핵(內痔核)

問 저는치질환자이온대 수년전부터 대변후출혈이 약간식잇사오며 홍문에 밤알만한 고기가 나와 부터잇사와 수술코저하오나 시일과비용에 여유가업사와 다만주사와약만사용중이오니 이것이치질인가요 하교하여주시요 (寧邊 一讀者)

答 치질입니다 물론 수술을 아니하고는 철저한치료를 그대할수업스오니 시간과경제가 허락하는대로 곳 수술을밧으십시요 당분간은 좌약과약을 구하야 사용하십시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 金晟鎭)

불먹는땐서ー

미국에서도 상항(桑港)이란곳 엇던 노름터에서「토ー멘스」로 이름난베티ー불러섬양이 불을먹는 춤을 구경하십시요。 몰론기술이겟지요만 보는사람에게는 끔찍끔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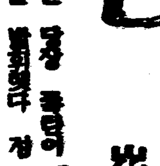
우리차지

서울애들아 원두막이 뭔지 알겟니。 원두막은 참외밧테 해세워노온 망보는 곳이다。 나는 요새여거서논다。 아저씨의 옛날애기도 듯고、형님의 단소소리도 듯고、그러다가 참외 사러오는사람에게는 참외를 따서 팝니다。

금강산서 정태훈

小說 보리방아 (十三)

蔡萬植 作 崔賢郁 畫



태호의 어렴은 당장 급단이 상으로 파괴함을 발하엿다 정세는 불리하다

면장은 대번 얼굴이새빨개저가지고 태호를 깨물어리스랑거 노려보다가

「거참! 큰일낫네!—원시 어쩌자구 나를! 이 주먹만한나를 못잡어먹어서 들 그러는가모르깃네!」

하고 치밀어 올으는 화를 해써 억눌으느라고 밥져 입어서서 경상도로 서성서성한다 그러면서 만만한 부채를 설레하게 피이다 다헛다한다

태호는 아ー주 민망한듯이—

「그것좀 갓구 그러케 곤난 것업네! 정히 그러케 그러심허시다면 그만두는것이지 멀 내가 억지로 쓰러는건 아니닝개……」

「아ー니 비단 자네뿐이 아니라 모다들 내가 내나라이나 각구 장리를 노아먹는것처럼 작구 와서 돌 졸라사닝개 그리서 허더럼이네 에ー그거참 으옴 거참!……그래 팍두섬이 잇서야것는가?」

면장은 팔짱 수구러저서 내보는듯이 뭇는다

「웅 두섬만 잇스면……」

「그럼 내일 지어내갈사람 데리구 들어와서 수속 다허구 가저가게만은 참 아무더러두 그런말 허여서는 못쓰네」

「어ー이! 그야이를말인가? 그건 념려마소 내주는것두 고마운데 내가 왜……」

「그럼 어서 저리가세…시간이 다되엿네」

면장은 쓰이맛을 다시면서 계를 끄내보고는 모자를 띠어쓴다

이곳 진흥회에서는 오늘 월례(月例)로 회원을 모아놋코회장인 면장의 훈화와 그밧게여러가지 「연설」이 잇슬판이다 장소는 면사무소여프로 잇는 보통학교 교실이 의례히 정해노코 쓰는곳이요—。

면장이 아페서고 면서기 네사람과 태호가 뒤따러 보통학교 동둥장으로 올려섯다

면서기 네사람은 제마다 검정 알파가저고리에 카ー키ー빗 탕크바지를 입엇고 면장만은 헌 조끼에 회색 양복이다

그래서 맨앞 면장과 면장뒤의 태호를 빼노면 네사람의 면서기는 무슨 유ー니폼의 행렬처럼 가조롭햇다

아이들이 도라간 보통학교는 텅비이고 한가하게 조용하다 즉ー죽 탐스럽게 버텨올라간 포푸라나무에 틀려사한 두채의 보통학교교사(校舍)는 보통학교 교제로쓰는 제도의 그림에 잇는 그대로 외양이 단순하고 정갈스러워보인다

운동장 한갓운데에는 수백년이나 묵은 느티나무가 키ー다락케 그늘을 깔고안젓다 느티나무에서 시트램이가 흥에겨워 울다가만다

면장일행이 학교 사무실에 들어서면은 회원과 여러 손들은 벌서 회장인 그업교실로 드러갓고 숙직교원만이 혼자 안젓다가 면장한테 허리를굽혀 인사를한다

「오늘 수고이시요! 다들 모엿지요!」

면장은 다례를하면서 이러케 뭇는다

숙직교원이 벌서 정각이 지나서 달은 회원이나 손들은 다들 회장으로 드러갓다고하는말을듯고 면장은 그대로 면장을 선두로 면서기들은 교원과 작거리며회장으로 드러갓다

면장이 회장으로 들어서자모든 손들과 회원들은 일시에덜컥거리며 일어서고 손들은 각기 인사를한다

태호는 랑하로 돌아 뒤문으로해서 회원들이 안저잇는 뒤에가서 살그머니 안젓다

회장인 면장이 자리에 안스자 회장안은 다시 조용해젓다

회원은 한 백명이나 들어안젓슬가?

그 광경은 보기드믄 기관을 이루엇섯다

백명 가가운 촌 농군들의구실명까지는 먹물을 드린 삼베옷을입엇다

제법 두루맥이를 입고온사람은 한둘바게업고 모다 동저고리바람이다

상투는 구경할래야 물론업고 모다 중대가리로 바바 깍것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의 례외도업시 벼레 껌어 구리비트로 걸룹고 표정은 어둡다 그러나 모다 근숙하고 조심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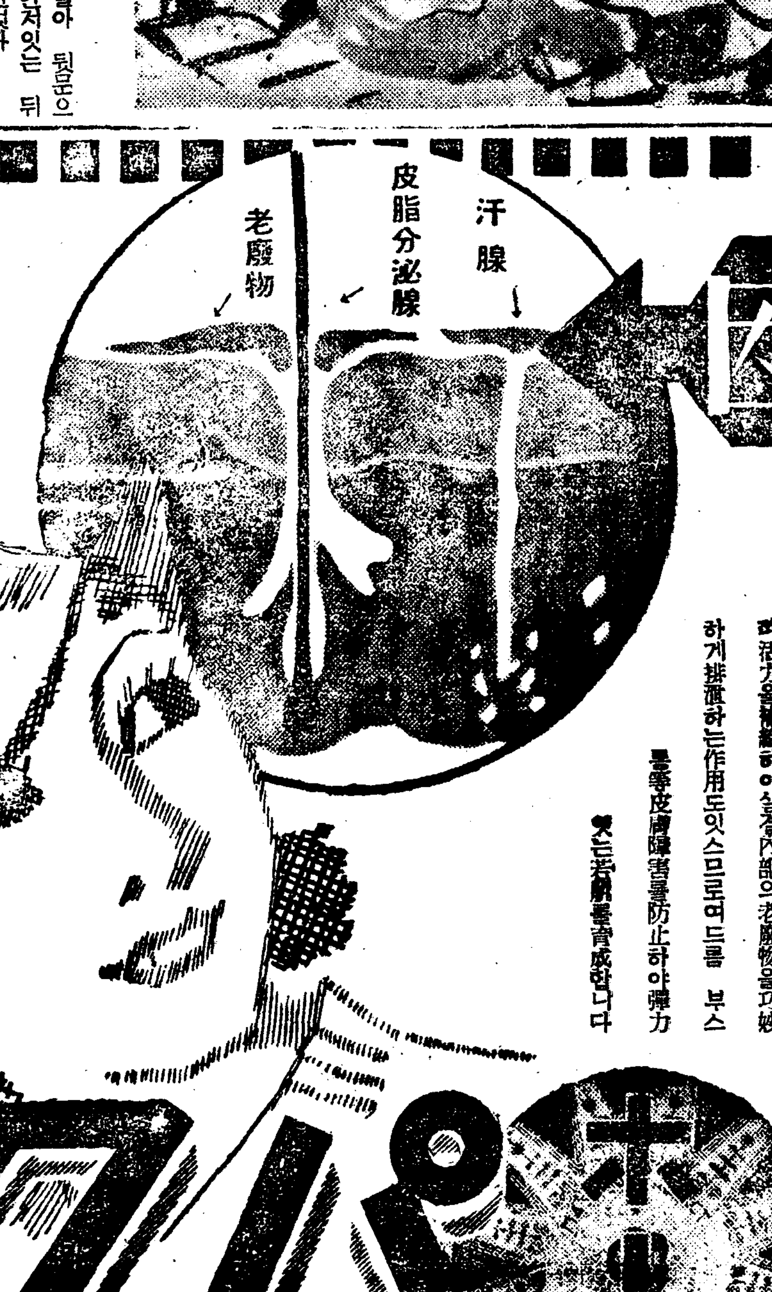
그들에게 일제히 송람을 씨우고 목빡을 돌려놋는다면 어느 틈직한 절의 재를 올리는 마당도 가틀것 가럿다

혹시 이 회장에 그새 한십년외국으로 도라다니다가 소식도몰으고 처버 도라온사람이 척 들어서다면

「이거 내가 조선을 잘못 차저오잔햇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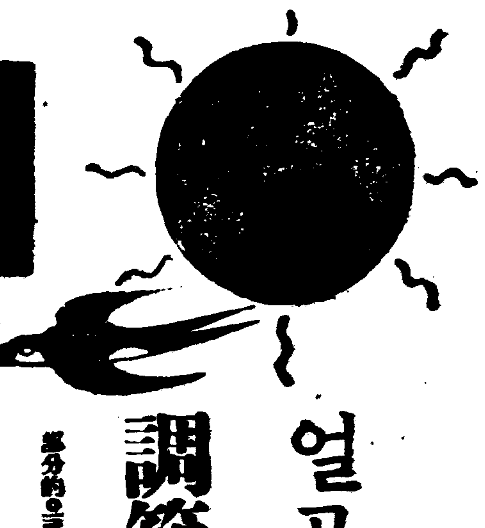
이면 교단 좌우로는 한열댓명이나 되는 손들과 귀한회원들이 벌려안저잇다



얼골기름의 調節力滿點!

惡質な日ヤケの原因

部分的으로고치지말고얼골全體를防止함에는▲適當한皮膚分泌를調和하야脂肪을 앗것▲日光의紫外線을吸收하지안는性質을씻는白粉을흡수하는것이要點입니다▲그럼代表的皮膚가될것인大發明……저 마스타ー홍팩트와混合粉子에巧妙히싸여잇는비결데있는活性白味劑야말로皮膚의積的調節力이滿點입니다 自然홍팩트化粧은거울속에는淸新味第一입니다



美의根本은?

홍팩트의甚美的特徵……그것은基本美肌劑라세링이라는滋養性劑의 스킨·호르몬劑를配合하여잇는것입니다 이스킨호르몬은皮膚下에滲透力이強하게皮膚細胞에美의榮養과活力을補給하야살결內部의老廢物을巧妙하게排泄하는作用도잇스므로여드름 부스름等皮膚障害를防止하야彈力잇는若肌를育成합니다

기름끼업시惡質 벗꺼름을防止한다

二重色化粧法

至今流行하는二重色化粧法은立體的이여서▲化粧이기름끼업는淸新味가滿點입니다▲그리고▲惡質인벗꺼름을防止하는優秀한特徵을갓고잇스고또方法은다음과가티容易합니다

(一)最適의粘稠度로만드러잇스므로榮養第一… 마스타ー의콜드로地肌를淸淨하게합니다

(二)그리고爽快한色의白粉크림 오ー클·마스타ー에水分을조금加하야잘바르고까ー제로눈·입·이마의周圍를가볍게문드림니다

(三)마스타ー홍팩트의카카오色을바로로가볍게두드릴때눈섭에부튼粉을가볍게씨서버리고 마스타ー연지로化粧을마칩니다

マスターパクト 마스타ー팩트

家庭用コンパクト

サラつとのびる白粉クリーム

オークル・マスター

學藝

「文壇雜感」 (1)

倦怠에서 친近來評壇

朴英熙

最近 朝鮮文壇에는 一般으로 評論界가沈滯되엇다。 朝鮮文壇에 關하야 所感을 써보기로 되매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되는 것이 「評論」이다。 細密히 個別的으로는 또한 조흔 論評가 업는것도 아니지마는 全體로 본다면 우리의

…倦… 欲을 일으키게할만한 淸新한 아모것도업다는 것이다。

近間의 論客으로 말하면、몃사람을 除하고는 例의 左翼的殘留로서 攻擊만을 일삼는 몃사람이 잇슬뿐이다。 요새이에는에 떼이는 論客의 일홈은、林和、韓曉、安含光、金斗鎔、金文輯 諸氏外에 白鐵 李甲基 兩氏가 또한 加入되여잇다。 이外에도 明滅하는 評論家가 相當히 만흔듯하나 近間 朝鮮文壇에 그나마 話題를 提供하는사람은 亦是 上記한 諸氏인듯십다。 그中에도 林和 韓曉 安含光 金斗鎔 諸君은 左翼的 攻擊部隊에 屬하고 白鐵 李甲基 그리고 나까지 三人은 被攻擊防禦하는 任務에 서잇는 形便이다。

나로 말하면 벌서 六年前에 나의意見을聲明한後 金基鎭君의 最初의 論戰을비롯해서 現今에 이르럿스매 先進이고 後進이고 그 同一한 論調、無意味한 絶叫를 꾸어시。

…反… 復하매 거진 길까에 들맹이를 본는것보다도더 無意味한일이기는 하나 白鐵、李甲基 兩君을 攻擊하는것이그들의 새로운 課題이며、現階段的 事業인듯십다。

그런데 白鐵、李甲基 兩君을 攻擊 할때면 依例이 내自身을 이저버리지 안코 論陣에 올녀놋는것은、그들의 頭腦의 健全함을 左證하는바이니 조흔이 慶賀하는바이지만은 事實을 새時代에 『차인‧된드』로 使用하려는 것은 君等의 論調의 貧乏과 內容의 空虛를 說明하는것이니 이도한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말하기는 쉬웁고 眞理를 찻기는 至極어려운 일이라 한동안에 「創作方法」이란 課題를 번역하려고 떠들석 하드니 結局은 浪漫主義者의 自己蠶動만이 튀기고는 歷史的―辨證法家의 「모라토리움」의 宣言을 슬적구도아부에 부치고는 시치미를 뚝떼고 한동안 表薄한듯 하드니 白鐵君의「人間探求問題」가 그들의

…再… 生活을 攪亂하는生命水가 되고 救命丸이 되엇이 白鐵 李甲基攻擊에 活氣를띄인듯 하다。

그는 그러타고 하고 이사람들의 喧嘩를 除하고는 評壇이란 볼만한것이 업스니 虛弱한 身體에 病나기 쉬운것도 一例러니와 도대체 文學을 研究하는 文壇에 文學을 研究하는論文이 도모지 업스니 이로서評壇은 研究的 學者的 氣風이업는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마지안는다。

文藝論評에는 時評도 잇고 研究도 잇서야하겟는데、時評에도 아나라나는作品을 말하는것뿐 아니라 새로운 境地를 探索하는 것도 조흔일이다。 그런데 現今 朝鮮文藝評壇에는 研究는 말할것도 업서 貧弱하고、

…時… 評하면 依例이 남을 不正當하게 攻擊만 하려는줄로아는 모양이니 이것도 逆히 淸算되엿스면한다。

學問에 잇서서나 或은 文藝에 잇서서 그 基本問題로하야 彼此에 論戰이 업지아니 하나 남의 主張이 내 主張과 달느다고 해서 곳 反駁과 時을 하고 自己主張에 合致된다고 稱讚한것도 그냥 덥퍼노코 禮讚하는것은 너무나 稚氣를 発치못할뿐만 아니라 一平生 論戰만 해도 꼿치 나지 안흘問題다。

文壇은 軍隊가 아니다。 千사람의 意見과 觀念이 同一할수는업다。 各自는 各自의 길이잇는것이다。 林和는 林和의 길이 잇고 韓曉는 韓曉의 길이 잇스며、白鐵은 白鐵의 길이잇스니 各自는 一生동안에 自己의 길을 完成하기를 힘쓸것이다。 一生동안에 巨大한 努力을 하드라도 自己의것을 完成하기는 참 히 어려웁다。 얼마나만흔 사람들이 이것을

…嘆… 息하엿는고! 그러까닭에 나는 나의 意見을 聲明한후에 이에 對하야 左翼評論家에게 攻擊을 바덧스나 지금까지 다 默殺하고 말엇다。 나의 이러한 態度는 잘한것도 잘못한것도 아니다。 當然히 내가 가질 態度다。 말하자면 나는 나의 갈길이 잇는 것이니 目前에 어리석은 論爭을 일삼는것보다는 自己의 길을 끗까지 거러가는 것이니무엇을 얼마마큼 成就한후에、그 優劣을 省察할것이라는 信條이엿든것이다。

한사람이 가진 文學上、或은 哲學上 信條를 相異한 主張을 가진사람이 批判하며 攻擊한다고 해서 同一한 信條가될수는 업는것이다 『칸트』는 어디까지든지 『칸트』며 『헤―겔』은 亦是 『헤―겔』이며 『톨스토이』는 어디까지든지 『톨스토이』며 『홉키』는 亦是『홉키』다。 問題는自己의主張에 完全한 體系와 完成의 域에 達하엿는가 하는것이 重大問題이니 各自의 이러한 體系와 功績은 한데 合하여저서한 巨大한 歷史的 體系를 이르운 는것이다(계속)

隨一筆

여름風景 (2)

蔡萬植

◇낙시질 (중)

한 十分이나 고동을 바라보고 잇섯슬가? 突然!(흠호 突然이다)고동 대가리가 간닥간대 놀고잇슴을 나는 發見햇다!

나는 前後를 미처 생각지도 안코 그냥 낙시대를 잡어채엿다

잡어채이는 그순間 나는 퉁직한 물고기가 후두둑 靜然한 銀鱗을 日光에 번득이며 달려올것을 豫期하고 십것 웃엇든것이다

그러나 아! 얼마나 슬슬하냐! 힘업시 채어지는 낙시에는 빈낙시만 대롱대롱! 물만 씻기고 떨어기란!……

그것을 보고 李君은 「밥만 떼워네그려!」하고 남의속도 모르고 빙긋거린다

나는 다시 미끼를 끼어가지고 낙시를 드리엇다 이번이야말로 失敗를 아니할 구든 決心을가젓다

왜 그러냐? 하면 李君이 흠흠하기를 고동대가리가 간댁간댁 놀는것은 고기가와서 아주 낙시는 훌치아니하고 밥을 조곰만 떼어서 맛을 본는때다

그러니까 그순間은 그냥 두어야한다 그러면 맛을보고난고기는 다음순間 낙시밥을 낙시채 염석물고 휘다러나게된다

이때에 고동이 물속으로 쪽갈어안거나(이것은 물고기가저便으로 다러날때다)또 쪽 솟거나(이때는 물고기가 이便으로 다러오는때다)하는것이다 그 잘나에 낙시대를 잡어 채어야만 올케 걸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미처 못알어보고 미리서 잡어채엇든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하고 뚜러지게 흡과 고동을 바라보고잇기를 凡 五分가량 거속혓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하하 이러케 緊張해서 바라보고 잇는것이 太公望의 뽐의 하나로구나!』

하는 眞理를 發見햇다

그래 한 五分동안 그러케 바라보고 잇는데 果然 또 고동이논다 아주 微妙하게 간대간대

나는 살그머―니 낙시대를 잡고 그다음순간을 기다린다 니까 아니나 다를가 고동이 갈작히 물속으로 쪽 가리안는다

그것을 본 순間나는 벼락가티 낙시대를 잡어채엇다

낙시대를 잡어채일때! 기가 막히는 순間이다! 낙시줄에서 낙시대로 올려와가지고 다시내 손바닥에 울리는 팽히 가볍기는하나 分明한 彈力과 목진한 反撥力! 彈力이 어찌 그에서 더 아기자기하리요

勿論 그瞬間에 맛본는것이다 光榮보다도더 벌잇다 그러나 그러마를 마지막라다운만치나 貴重한것이다

그러한 자미한 快感을 주면서 낙시끄테 달려올라오는 놈고기!

정말 낙거올리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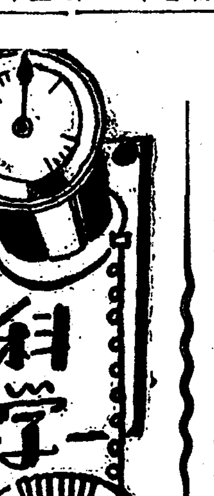
不幸히 낙기운놈은 눈곳수룸하고 입마귀―다락데다가 몸에어곳나게 수염까지난 자가사리 끈놈이다 아주 못생긴 물고기다

그러나 그러것은 내가 알배아니다 左右間 나는 훌륭하게 재미를보앗고 그러고 고기를낙고 한것이다

그다음 둘재번에는 헹영한치 고 세재번에는 됭엉입니 한마리가 입이아니라 넓적지가 궤이어저올나왓다 아마 밥은 다른놈이 따먹고 어째잇든놈이가 애꾸지게도 지나가는 낙시끄테 걸려올라온모양이다―똑 리아―드카트면 흘미이라는것이 엇다

재수업시 거가 한마리 붙려 나왓다

夕陽에 도라올때 내고리는 띠合 여섯마리。 團員인 李君의 그릇에는내마리가들어이섯다 그곳에는물고기도 안들어 보는모양이지! 李君은 近來에업는 不漁라고 울상햇스나 나는 단 한마리만 낙엇서도 滿足할번한걸 여섯마리나 낙거 크게愉快햇다



壯快無比한 山岳登攀의實際 (四)

崔圭用

確保

層岩絕壁에서 身體가 墜落되지 아니함은 그곳에 確保되面과몸이 平衡되어 잇는것이다。 이平衡을 適當한時에는 確保를 엇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危險할것이다。 登山家가 이確保와 平衡을 엇기爲하야 가진苦心을다한 後비로소 今日에와서 各種의確保法을 究明하야왓스니 이것은 力學的 應用에서 出發한것은 勿論이요 身體全體의 姿勢調和와 個人의 精神的自覺的의 平衡能力 用具適應學 共同作用과 個個의 岩面을 詳細히 觀察하야 適當한홀드」(홀드라는것은 岩面에 手足을 붓칠만한 凸凹이니 登攀에는 이것을 잘應用하고 아니하는데 難易가有하다)를 어더야한다

『홀드』에依하야 身體를確保할時에는 岩面에다 直角的으로 힘을너어야한다 A圖에圖示한바와갓다

G¹G²는體力의方向 D는岩面에 對한摩力 g는 滑落力 R은摩擦、丸票는 무릅과足의關節을表示함이니 岩面에다直角的으로 힘을作用식킬수록 g라는 滑落力이 적은것이다。 B圖와가티 힘의作用이岩面과의 角度가 적을사록 滑落力이만코 同時에 危險하니 例를들면 若干의 句配우에서 밋그러지운을때 손을모저고우고 上半身을 超立케한然後 徐徐히 일어나야한다 足部에『홀드』가업슬때 身體全體가 同時에 超立코저할時에는 體觀하야 滑落되고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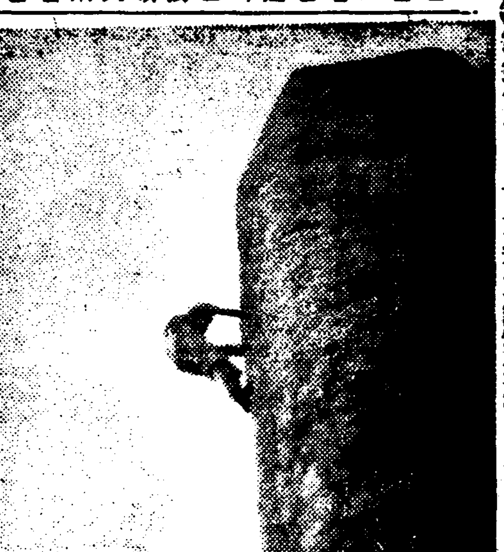
홀드에依한 基本的確保는 손과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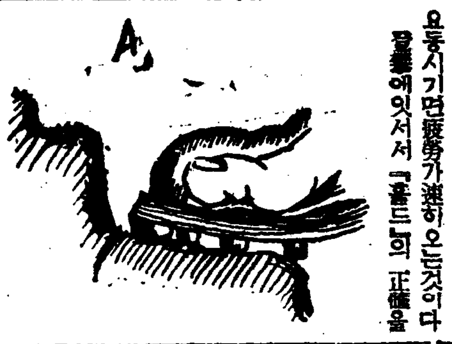
圖에表示된손의 『홀드』圖에表示된발의『홀드』이두가지『홀드』를不絕히 注意하야 練習하면할사록 絕壁層岩登攀을 容易하는妙味가 스사로 날것이니 普通步行을할시에도 身體全體를 요동시기면疲勞가 速히 오는것이다 登攀에잇서서 『홀드』의 正確을 알게하며 身體의 平衡을 豫知케하는것은 발보담 손이요 손보담 눈이니 不幸한 登攀의 失敗는 눈보담 둔하고 손이 行하는 範圍는눈보담좁다

다음 『홀드』에 對하야 前衛的能動的信念을 寸刻이라도 速히가지게하는것은 눈의 唯九한 觀界偵察에서만 期待되는바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垂直的岩面에 잇슬지라도 이頭部를 岩面에다接觸시키지마라 頭部를 垂直的位置에다 恒常둔다는것은 그觀界를 넓게할뿐만아니라 더욱觀覺을 正確히하므로써 모든動作이 正常할것이며 悠悠히 登攀을할수잇는바이다

第四圖는 各種岩面에의잇서『홀드』의 樣式을 圖示함이니 其中 0와가티 兩手끄트로『홀드』를 까거머지더시하면 身體行動에 큰 自由를준다

第五圖는 逆層의 『홀드』에서使用하는足端의 實例인데 B圖의 實例는 逆히 確保할뿐만아니라 不正確한홀드다 A圖는 만히應用하는逆層에서의『홀드』實例이니 이것을 應力的登攀을주는同時實노 놀나운 效果를 得할수 잇다





(寫眞은 록크라이빙하는光景)

한여름밤의꿈 ⑥

차마주름에 씨여진箴銘

李善熙

신물매도 하지안햇다。 보통이도 업다。 집행이도 업거니와 집벗도 업다。 비록그렇색이 放浪는 할지언정 외롭지는안타。

어떠한 내게는 이상한 처마가잇섯다。 惡魔의 바람에 짓흔 자주와 보라비검꿈들이 흘드려잇고 그리고 그우에 그꿈들이 가진 빼를 뭉개는 술통과 麗舘와 뿌리와 술기운을 銀食器로 수를 노아 수없는 詩의 紫紅을 일우고잇다。

나는 이치마를 둘쳐입고 제비가리 거둔한 마음으로 世界 이쪽끝에서 저쪽끝으로 슬녀가는 自由民이 되엿다。

×

까마득한 大洋가운데 한點、똑 찍어노흔琉球바섬에 이르럿다。

「오오 海嶋의 고향!」

海邊을 마러다펴다하는 산댐이가를 힌물결과 椰子나무의구수한呼吸과 고기는 할가리는 진주들이 잇다。 허우대 조흔 미국 海兵들의 너털우슴 소리에 土人의 딸네들은 귀고리를 내저으며 술속으로 내뺀다。

내일홈은『비나란』─그리고 머리는 빨한 리본으로 동이고손목에는 금으로만든 커다란 손목거리를 끼엿다

나는 날마다 팡주리에 南京콩을 담어가지고 거리에 나가 팔엇다。 한손엔 팡주리를 들고 다른한손엔 꼬츨 들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내노래에 빨녀드러 콩을 사주군햇다

어느날 나는 집씨의 무리를 맛낫다。 그들은 바람에 몰닐것처 쭐창 흩더다니는 曠族으로 流轉人이 그엇이다。 나는 그들을 따러나섯다。

밤이되면 술속에 天幕을 치고 거기에 화투불을 피여노코면 불길은 밤 허공을 날는고 빨어올비치 술속에 배여들어 四方이 흰―하게 어룽거렷다。

그들은 이불을 둘러 싸고 소렐에 술을 따라 마시고 팔끄레、고기를 뀌여먹으며 춤추고 노래한다。

『불며에는 가렵운데도 허지말랏다』

젊음과 또 사랑이 잇는동안 춤과 술을 享樂한다。 이以上 더 생각해선 무엇하랴。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사랑도 결코 永遠한것은 아니어니。

『異國의 아가씨―당신을 나은 땅은 東方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일것이외다』

이러케 조심스레 내치마자락에 입을맛추는 사나히는 금빗머리와 푸른눈을 가진 「롯、호제」엿다。

나는 한참만에 겨우 이러케 물엇다。

『칼멘은 당신은에 心臟을 遺하여쥬지안흘수?』

『칼멘은 그무서운 젊은짐과함께 흙으로도라갓슴니다。 한번간 것은 다시도라올줄몰룹니다』

내꿈의지마는 내게 속사이다 외편으로세계주름미를 펴보라고 거끼를 펴보니 이러한 글귀가 적혀잇다。

『이제 海濱의꿈은 깨일때로다 나는 어느날밤、西班牙로 도라가는 집씨단을 가만히 도망해서 東으로 東으로 빼손이를 첫다。

하로는 다리는 알코 몸은 말러서 아모데나 주저안젓다。 무거운 疲困이 등주리를 나려놀너 나는 한참 실컷자고낫다 깨여보니 어느듯 한낫도 지나고 夕陽의지언한 바람이 몸을 건늬고잇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앗다。 나무한데업는 모래땅이로 뒤덥는 曠野인데 멀리 山들이 울퉁불퉁 그산봉은 깍근듯이 갈남져치고 많은봉로 뵈엿다。

나는 그山허구리에 가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한움이에 차저다。 그리고 그움이우에는 이려한 글자들이 씨여잇다。

『死의擁刺』

서움지안코 그門을 열엇드니 그안으로보며 이상한 말소리가 처다 나는아모두려움도업시 고소리이 그안으로 드려가서 무릎을 꿀엇다。

젊은 姿裳를 입은 修道士가 내아프로 천천히 거러오며 이러케 뭇는다。

『그래 젊은女人이시여 내게무엇을 원하느요。 나는 죽엄의藥을 비저 삶의 저자(市)로보내는 者로다。』

『洞窟의聖者―죽엄은 不滅의藥君、영원한終結 위대한 유혹이 아니오니까。 얼핀내게 이잔을 祈諾하소서』

수도사는 경은병을 기우리다 잔속에부어노흔 흔즉이는 液體는 쓰고도단 香氣를 뿜는다。

나는 잔을 바다들고 내힘손길을 다시한번보앗다。 그리고눈을 딱감고 막마시라하는 순간 내꿈의지마에 씌글시가 내갈은 눈물덩이두던이 內迫하는것이엇다。

『꿈은 꿈으로 돌니랑、그대는 냉큼 現實로 도라가라!』

이때 내손에 들어면 잔은땅에 그랑누진 쇳소리를 내며 딱에 떠러젓다 나는 잠이 깨엿다。 손에든 앗가 잡어든 파리채가 그냥 쥐여잇다―못―

讀者社交室

▲年齡二十歲以上三十歲以下의私立普通學校敎員 一人을 採用하겟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시면 詳細한것을 相應하겟나이다 論山郡夫赤面外城里 李青薔

▲滿洲國內에게신 同胞여러분께社交室을通하야뭇슴니다 本籍을朝鮮忠南扶餘에두고 南、北滿洲로가신분이잇는대 姓名은任迎宰。當年二十七歲(쯤)이시는분을社交室로通知하야주시요迎宰氏보시거든 天安으로片紙하야주시요 奮發生이더욱궁금

▲저는 예수를 미드려고하오나 或反對하는사람이잇습니다 대관절밋는것이 올흘일이면 돗지아니하고 밋고저하오니 確實히判斷하여주시옵소서 會寧佛人讀者

▲大日本國民中學會正則講義錄(舊版도조흡니다)이나 또난早稻田中學講義錄을 各各分類製本한것으로 始終完全한것을 讓渡하여주실先生께서난 左記로讓渡全額記入通知하시면 感謝하겟슴니다 市內長橋町四一 朱煥起

▲京城市內에게신 讀者諸兄에게 問議하옵니다 本人은今年十九歲입니다。普通學校를 일즉이卒業하고 家事에助力하면서 講義錄等書籍을만히읽엇슴니다。그런데 市內에英語講習所가잇다는말을들엇스나 左記敎餘를알지못하야 上京을 躊躇하오니 다음날相助하여 나갈 貴兄들이여! 下敎해주십시요。

一、入學期日(期日經過時의特別入學可否)

一、試驗의有無(有하다면 試驗種目)

一、學校住所 慶州 O生

▲朝鮮日報愛讀者諸氏여! 金禧益(二十一歲可量男)의住所를알녀주서요 謝禮는東京菓子한封드리리다 東京府下吉祥寺二〇七一石川方 徐相善

▲貴報一月二十一日社交室에中國語를 個人敎授하신다는『自稱中國語通事』라는先生의 住所와姓名(無論이면)을社交室로通하야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 西大門 一讀者

▲貴社交室을通하야뭇슴니다 小生이數年前부터 漢醫學을 研究하오나 充分한研究費가 無하와 大端히 困難한立場에잇슴니다 여러분 漢方醫學에 對하야 자서이 講義하고 明確하게 記錄되여 漢方醫學敎授할만한 書籍이잇스면 이우리社交室로 通知하여 주시요 只今大田府의 大成醫學에서 在學中임으로 參考書가 不充分하야 工夫上莫大한苦痛을맛고잇습니다 速速下敎하야 주시요 大田春日町二丁目 敬知生

▲五月十六日밤 桂洞路上에서 『金誉』이라새인 印章을紛失하엿스니 或拾得하신분께서면 左記處로알녀주십시요 謝禮하겟슴니다 茶屋町五(豐本局一〇二六) 金 誉

▲小生은今年二十一歲이온대本來劇界에趣味와素質이잇다하오란거보다 朝鮮劇界에 誠意가잇사옵기를爲하야 꾸준한努力을하옵고저하오니 先進諸賢께서 손을잇그러주시압기바랍니다 紅把洞 市隱

▲本人이 民謠를 研究하옵는바 讀者諸氏中 잘아시는분이게시면 아시는대로 적어보내주시사오니 民謠를 아시는대로만 알어보도록 적어보내주시기를바랍니다 京城府社稷町一四八의二號 崔寶壽

▲讀者社交室을通하여 左記書籍을 求하오니 或讀者諸賢가온대 實讓하실분이 안게십니까? 有意하신분은 實渡價格을明記하여直接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오면 大端感謝하겟나이다 越智眞逸著 最新生理學(增訂第七版) 原價十四圓

▲제게只今 暗室不用카메라(時價七圓)及其附屬品(靴、三脚等)이 有하온대 此를安價로 讓渡하겟스니 누구시든지 寫眞에趣味와 뜻잇는分은 左記로 一葉通知하여주십을 仰望하나이다 但、往復葉書(로) 慶北河陽邑內琴湖洞七五番地 安永吉

新刊紹介

▲ホームライン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ホームライン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錢

▲共生保健月報 第二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二五 共生保健月報社 振替京城三二〇〇番 定價一部五錢

▲時代像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三〇 時代像社 振替京城二一一五三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音樂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三六 音樂社 振替京城一六五六七番 定價二十錢

▲基督敎報 第六十四號(週刊)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連載野談 布袋記 (六六)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복을꺼리는그칼 [十]

확광왕이 공주와 호동왕자를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떨개호동왕자를 향하야

「공주! 이미 네가 장성하야 그배필을 정하려하나 아직도 뜻에 맛는 랑자를 보지못하야 아비된 마음에 그윽히 민망 그러커늘 우연히 로장에서 왕자를 처음 만나자 그즉시로 공주의 일생을 부탁하고、시픈 마음이 간절 그러나 경솔히못할일. 이제야 그실정을 드려서 정당, 내가 이술잔을 밧기전에 피차 공중을 열고 기피벼힌 마음을 푸려 정답하자는것이 다른의미가 아니라、즉 공주를 부탁하려든 뜻이 아직못게라 왕자여。공주가 못첫치못한것을 허물치 마시고 을 저버리려는 그사람의장래가 어찌될가?。」

하며 호동왕자는 확광왕이 진정을 다하는것을 불구하고 딴뜻을 품은것이 아마도죄가되는 것가티 생각되엿다。

그리하야 공주와 백년가약을 맷는 여부를 대답하기전에 먼저 그딴뜻을 품은 가부를 판단하려고햇다。

「웨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해서?。」

하며 확광왕은 호동왕자를 뚜려지게 바라보며 말대답을 재촉하얏다。

「황송하온 분부로 알외오。」

하며 호동왕자는 말끗을 가부간 분명히 매지못하고 어룩어를 대답하얏다。

그리고 부지중 눈은 공주의 나 우선 제 공주를 내놓에

「너아왕께!」

하며 확광왕의 진정 공주의아름다옴 거긔에 홀리지아니하고 그뜻업은 북과 라팔을 느리고 그대로 나가기를 또한 걱심하엿다。

그러나 공주의 그아름다옴이 차마잇치지 아니하야 또다시눈을 공주에게 보내엿다가

「아아。아무죄가 업는 저순진무한한 처녀를 리용하려는 것은 분명히 죄악!」

하고 다시 마음이 쓰라리며 괴롭고만 시퍼랏다。

이몸의 진정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면 이몸은 외로운 몸이 살어 이생에잇서서는 마음이편하고죽어 땅에 뭇처서는 살과 뼈가 잘썩을것。 그러커니, 왕자여!。 이외로운 부녀의 정경을 살펴 주시기를。」

하며 호동왕자의 손을 힘잇게 쥐엿다。

어때 공주는 홀연 두 눈에 눈물이 매치며 고개를 떠옥숙이엿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그 부왕이 왕자를 두지못하신것과 그 공주를 호동왕자에게 의탁하려는말이 너머 간곡한데 감동이 된 까닭이엇다。

확광왕의 간곡한 말슴은 공주의 우는양。그부녀의 정경이야말로 진실로 인간의 진정이엿다。

「아아。확광왕이 낭만한 사람을 어찌 보한는지 만나든때붓터 그 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며 그 극지우연피 가려 귀히 길혼 딸까지 부탁하겟다는말。 그간곡한 말에 감격된 공주의 눈물。 그것이 모두 사록한것이 업는 순진한 진정。 그런데 이제나는 가슴속에 확광왕부녀의생명 또는 확광국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북과 라팔을 노리고잇는 나。 아아。남의인정 과생을 살펴엿다。

그 비단결이 접힌듯이 살짝 상커풀이진 눈, 복숭아꼿빗가리 붉어진 빵 그것은 분명히 마움이 기장되어든 빵빙 울고난 뒤의 눈맵시。 도대체 공주의수심을 먹음은 그래도는 마리아침이술에 취한 모란꼿인듯 새로 마움이 젊이엿다。

이에 호동왕자는 그선녀와가튼 공주를 바리기도 어려웁고 또는 그원수와가튼 북과 라팔을 그대로 둘수도업는 두가지 어려운 처지에 빠진것을 몸시나 괴로히 생각하얏다。

그리다가 문득 사나운 꿈을 깨듯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니야 아니야, 남의 인정이 중하지 아니한것도 아니오、절세미인이 귀하지 아니한것도 아니야。그러나 그 인정과 그 미인이 충효(忠孝)에 앞설수가 업는것。 내이제 목숨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나선것은 오직 충효를 위한거롱。그런데 이제 나는 확광왕이 지극히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는것은 물론 그큰 지우연과 가려 엿이는 딸까지 주려는 이돗아닌 괴힘를 만난 나、나는 이긔함를 라서 내가 뜻한 그충효를 나타내일때가 정히이때。그럼커

娛樂

토-키-의根本問題

—몬타쥬에對한論—

③ 林蔚川

몬타쥬의 目的이라는것의 根本問題로 말하면 爲先 觀客이 스크린우에서 이러나는 事件을 쉽게 理解하게하는대서 여러가지의 感動을 갓게하는것과 觀客의 心理狀態에 一定한畵面轉換과 그轉換템포의 變化를 일으키는데서 生理作用을 갓게하는일과 (觀客의 心理狀態에 一定한 感動을 일르키기爲하야서는 파부로후의 反射心理學實驗이 큰影響을 가지고잇다) 또한가지는 觀客의 注意를 映畵의 根本的인것에 結付식히는대서그 根本的인點을 攝取하는대 妨害가되는것을 除外 토록하는것이 大體의 몬타쥬의 目的으로서列擧되는것이다。

말이 中間에서 달으대로 흘렀스나 그 에이젠슈타인의『오버톤·몬타쥬』로말하면 以上에서 우리들이 보라운 크레숍、푸도킨(其他)의 몬타쥬·푸로세스에 加할수 잇는 새로운 몬타쥬的擴다。오버톤·몬타쥬理論이 토-키-初期에 잇서서 토-키構成의 基礎工事로서 貢獻한바는 크다 畵面은 視覺的 印象이고 音響은 聽覺的印象이다 視覺的및聽覺的『오버톤』은 가리生理的 感覺的인고로 視覺的오버톤과聽覺的오버톤은『同一』의 次元의量이 된다(우리들의 聽覺的印象과視覺的印象과를 單一한共通分母로서 還元할수는업다고한다)

따라서 그것의同一한次元的인것은 齊藝이나 聽覺的階調하게잇고 單只 同一한次元에到達하는 가이드(案內)나 手段으로서에지나지아니한다。그럼으로 視覺的오버톤에對해서『본다』는말은 音수가업고 또音樂의오버톤에對해서도『드른다』는말을쓸수업다 새로운말로 우리는 感覺한다 고하여야된다

이리하야 視覺的及聽覺的오버톤의對位法的衝擊우에 에이젠슈타인의 理論의本質이잇고 따라 러시아의토-키-의 構成을 基礎세우게한것이엿다

싸이렌트 映畵에서는 聽覺의 世界도 視覺的으로形成할 必要가잇섯스으로 거기에는 特別한 몬타쥬의順序 秩序를가지고잇섯다。 가령—A가書齋에서原稿를쓰고잇는대 B가차저와서도어를두크한다 그소래를듯고 A는부대를노코 들려오라고 對答하는場面을 싸이렌트映畵로表現한다고해보자。爲先 A가書齋에서 原稿를쓰는곳 다음으로 B자 도어를두크하는곳 그다음이 A가 原稿쓰는것을 中止하고들러오라고 對答하는곳—이러한順序로서그 세개의場面을 몬타쥬하지아니하면아니되라 물째번의畫面(B가누크하는 場面)을 省略하면A가 무엇때문에 原稿쓰는것을中止하고 입을옴족옴족하는지를B가 방안으로 들려올때까지는理解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토-키-로서 그런것을 形成한다면 第二의畵面을 몬타주하지아니하고、단지 녹크하는『소래』만을 들리는것으로 充分이 表現이된다。

이러例에서보듯이 토-키-에잇서서는 形成手段의視覺的要素와 聽覺的要素와의 몬타쥬에依해서 畵面構成의順序도 자연달러지는것이고 또는 그形成力도豊富하야지는것은 事實이證明한다

한거름더나가서 考察할것가트면 토-키-의視覺的『이메지』와 聽覺的『이메지』가 對位法的으로 說明될수잇다 토-키-의技術的基礎는 첫재 畵面과 音의同時化、即싱크로니제이슌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視覺、聽覺的인機械的再現의技術이다 따라 視覺과聽覺의同時化의可能性은 視覺과 聽覺의두가지를 時間的으로 自由스러운 그리고任意의 結合을可能케할수잇는것이다 또여기서 그것의 非同時性의結合이可能할수도잇는것이다

이것을토-키- 對位法이라고 말한다。일직이、푸도킨이『토-키-에잇서서 同時化되지아니한 몬타쥬의必然性의立場』이라고햇다。그것은 映畵畵面과 音響과의 一致나 同時化가아니라 그두개를綜合、非同時的인것을가진 辨證法的綜合을 할하는것이다、그러케하는대서 視覺、聽覺두개에依하야 눈아페보이는 現實을再現하는대 作者의自由意志대로 計劃되고、統制되고、몬타쥬되고 綜合統一될것이라고한다。

그러한 對位法的手法을 푸도킨은 具體的인 實例를 들고說明한다 (그런 作品이 世上에 나라나기前에) —視覺과 聽覺의 對位的 몬타쥬—

『어머니는 晃體여떼 가처잇다 그리고 觀客은 물이 洗灌盤 가운대 똑똑 떠러지는 소리를 듯는다。

그다음에 沈默하는 사람의업끌과 초人물畵面이 바라나고。

그리자 홀적홀적 느껴우는 소래가 들린다』

(映畵『어머니』)

여기서우는어머니의 姿態와함께 우름소래를 듯는것이조라。 흔이 常識的으로生覺하는 視覺과聽覺의 同時的再現에 對한 카운타포인트·몬타쥬(對法的몬타쥬)가 거기에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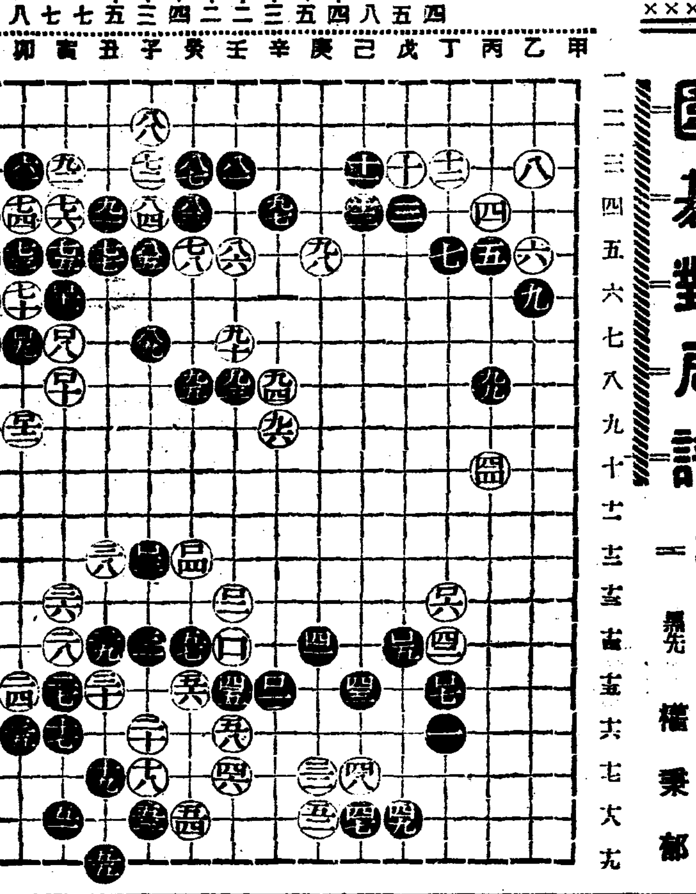
오래간만에요!

오래간만에 映畵로 다시도라온 『진·아-사-』(오페라女王)에서 단연 컨디숀이조치만 또 『월리암·보-웰』과 共演하야 「二對二」란 映畵를 내노핫는데 이것도아마 상당하리라고。

圍碁對局譜 —7—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 九七 辛의四
○ 九八 庚의五
● 九九 丙의八
○ 一〇〇 壬의十四
● 一〇一 辛의十五
○ 一〇二 壬의十三
● 一〇三 子의十二
○ 一〇四 癸의十二
● 一〇五 戊의十四
○ 一〇六 丁의十三
● 一〇七 丁의十五
○ 一〇八 寅의七
● 一〇九 卯의七
○ 一一〇 寅의八
● 一一一 寅의六
○ 一一二 卯의九

秦權文氏評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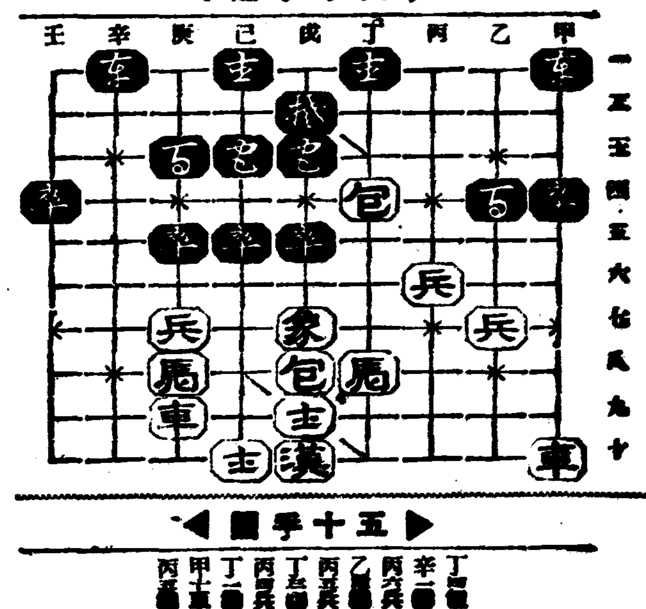
黑白이 互相縮縮에 各自努力하니 多事之秋라 黑丁의 十五로 本壽를 刓斷하고 白은 卯의九로 自陣을 構成하니 攻守雙方에 手數는 一般이다 白이 寅의七보다 子의十五로 黑三點을 捕取함이 妥當할뜻 黑은 方策이 現在四線하니 黑은 ... 을 도한번보리로다

將棋名手對手局譜 (五)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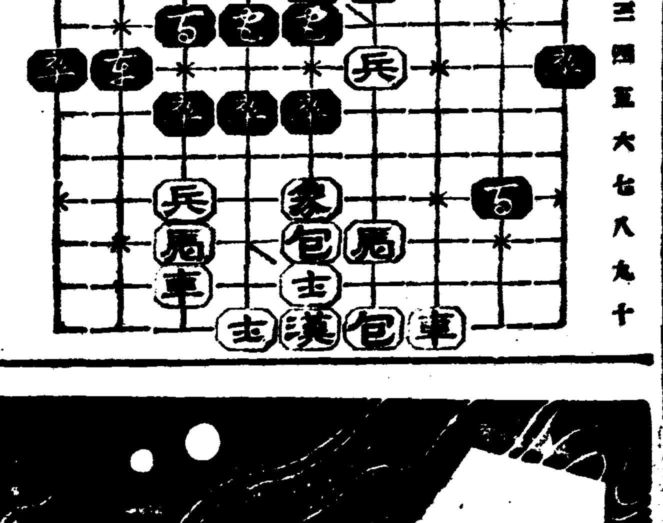
李在鳳 對 李英鎬

◀四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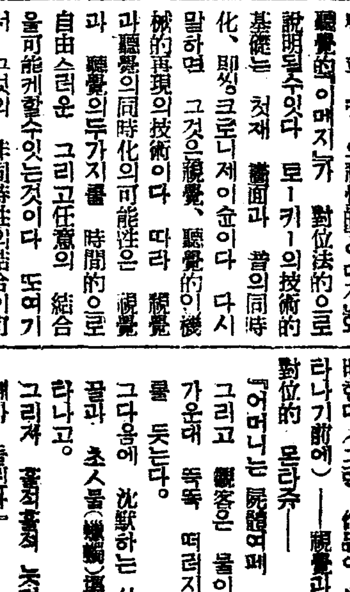


◀五十手圖▶

丁四[illegible]—丁十
辛一[illegible]—辛三
丙六兵—丙五
乙[illegible]—丁五
丙五兵—丙四
丁五[illegible]—丙五
丙四兵—丁四
丁一[illegible]—丁三
甲十車—丙十
丙五[illegible]—乙五打兵



라듸오



十七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昆虫採集』 李 新 求
◇同八時 講演『伏이야기』 權 惠 奎
◇同八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八時四〇分 (東)管絃樂 (近代及現代音樂第七回) 組曲『市人貴族』……리히알트·슈트라우스作曲 一、第一幕의序曲 二、메누엣로 三、武術先生 四、鋏術師의登場과춤 五、리우리의메누엣로 六、쿠-랑트 七、구레온트의登場 八、第二幕의序曲 九、食事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南漢山城 二、唱劇調 水宮歌 朴初月 鼓手 丁 元 奬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라듸오·스켓취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名) 浪花節
◇同八時三〇分 (東) 歌謠曲
◇同八時四〇分 (東) 管絃樂

十八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東) 輕音樂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夏期休暇를엇고 張 和 順
◇同六時三〇分 童話 葉 金 星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東亞日報社 高 永 煥
◇同八時 講演 娛樂과人生 金 晋 燮
◇同八時三〇分 農村歌謠 家畜農夫 張百中 趙春奉 朴範山 朴今同 李壽男 趙允元
◇午後九時 一、靑春 라데뷰- 二、구름도울며가고 三、黃昏의牧童 四、어머님품으로 五、人生의봄 六、빨비춤안고 金 貞 九
◇同九時三〇分 古談『背信敗亡』 伴奏OK 管絃團 張 志 浩

第一放送

◇午後六時(名) 傳說童話
◇同七時三〇分 (東) 라듸오드라마
◇同八時(大) 피아노獨奏 레오니도·크로이사
◇同八時三〇分(東) 講演
◇同九時 時事解說

十九日 (日曜)

◇午後〇時五分 西道立唱 一、놀량 二、앞山打鈴 三、뒷山打鈴 四、경발님 五、山念佛 金逸淳 任彩鳳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合奏 一、合奏…『童謠集』 二、五重奏…부랑졔將軍 三、合奏…바르세로나 四、五重奏…砂漠을지나는隊商 五、合奏…프라니女ㄹ拔華曲 六、五重奏…高等學校生徒 第一高普하-모니카밴드 指揮 申 孝 彰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盧 基 南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名妓名唱』 二、唱劇調『박석퇴』 三、새타령 崔 鳳 實
◇同八時四〇分 라듸오、코메듸 『男性對女性(三)』 —配役— 李仁植……河一琅 敬淑…(그의妻)…李英惠 繪俊根…(그의친구)…宋芝園 朱子…(俊根의妻)…朴璟子 奧永漢…(그의叔父)…盧湖涉 어이소크릭行商……徐 演 放送劇協會 演出 李 書 具 效果 楊 薰
◇同九時五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十時 歸還交換放送 —大連으로부터— 吹奏樂 一、行進曲 二、圓舞曲 三、接續曲 大連國際運輸吹奏樂團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少年音樂講座
◇同七時卅分 (東) 浪花節
◇同八時(名) 尺八
◇同八時十五分 (大) 名作物語
◇同九時五分 (大) 長唄

入學의기쁨도水泡 中途退學者가激增
黃海道內各普通學校에서만 六個月間에二千餘名

【海州】 황해도내에는 지정한학년을 통과한 행운을차지하엿스나 수업료(授業料)과 다른관계로 중도에 그배움의터에서 눈물을 뿌리며 퇴학하는어린아동이 날로늘어가고잇서 농촌피폐의일면을반영하고잇다。 황해도학무과(學務課)집계에의하면 금년이월부터 지난륙월말까지의 륙개월동안에 도내보통학교에서 중도퇴학한 아동수는 해주(海州) 사리원(沙里院) 겸이포(兼二浦)등 읍소재지의륙십이명과 농촌의면소재지 일천칠백륙명을합하야 이천일백 이십이명이란 놀라운수에달하고 잇는데 그원인은 월사금미납관계가 대부분이라한다

回甲宴을廢止 社會事業喜捨
求禮金德賢氏篤擧

【求禮】 일흔회갑식의례와 강렬한 백세적합을위하야는 전국의량미를 폐사로하면서도 사회의공익을 위하여서는 일푼의희사와 동정을 아깝게여이는 부허한이 세도인심에 입생애 오즉한번잇는 사어방면에 힘이자라는데까지 긔념회사를한다는것은 경하할일이라아니할수업다 구례읍내봉동리(求禮邑內鳳東里)김덕현(金德賢)(*)씨는 금년이회갑인데 남들이다하는 회갑연을폐지하고 그긔념사업으로방금허어저 가는 구례공립보통학교(求禮公普校)교사신축기금으로 밋 씨가 신봉하는 구례긔독교회의 사업비로 각각 금일봉식을 굶번에 그자제 김안식(金安植)씨를 통하야 자진희사하엿다는데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매 조울고잇는 조선사회에 한경종과 교훈이된다고한다

會合은무슨意思? 對策은업섯다고
有耶無耶中에흐지부지한 所謂渡航對策協議會

【釜山】 일본내지 도항저지대책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야 각관계당국이 경남도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 십오일 오후한시부터 총독부경무국급 내무국촉탁 두명과 경남도경찰부각과장 부산부 부내수、 륙랑경찰서 대표자등이 회합하야 비밀히 협의를하얏는데 이제그내용을 탐문하건대 서로의견을 교환하얏슬뿐이고 아무런구체적방책을 강구한것이업서 문자그대로의 유명무실의 회합이엿다한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인만큼 그대로흐지부지할수업슴으로 적당한 시긔에 재이차회합을 할터이라한다

迷信을파라먹는 巫女에게大彈壓
海州署保安係에서 廢業命令과함께장구等押收

【海州】 해주서(海州署)보안계에서는 가지가지의 얄구진·미신적행위를 감행하야 사회에만흔 폐해를끼치고잇는무녀를 취체코저 그들의동정을 엄마전부터 살펴오든터인데 요지음에 이르러 대탄압을내릴계획을 세우고 지난 십오일에해주읍 상정(海州邑上町)오십구번지 조씨(趙氏)(ㅌ)외이십명의 무녀를소환하야 폐업명령을 내리는동시 그들의 직업 도구로쓸수잇는장구、징오롱은산검단면등에 궁하야 개를압수하엿다한다

代車面民代表 水組急設陳情

【甕津】 황해도 해주군 대거면(代車面)과 옹진군 가천면(茄川面)의 면계에 잇는 옥천(玉川)평야에 급속히 수리조합을실현해달라고 가천면 한현리(閑峴里)사는 강계희(姜桂熙)와 동면 삼괴리(三槐里)사는 강석영(姜錫榮)량씨가 지나간 십사일에 황해도 당국을방문하고 진정한사실이 잇섯다는데 그사실을 드른바에 의하면해주군 대거면수동 숙달 강정 조룡(水洞、淑達、江亭、宗峯)등의 네동리와 가천면옥천、한현、사산、가암、섬변(玉川、閑峴、沙山、架岩、城邊)등의 다섯동리를합하야 이개면 아홉동리에 궁하야 산재한 토지의 총면적 일천오백여정보 내에 기설답의 면적이 약오백여정보가 잇는데 이것을 지나간 대정십오년경에 대가(代茄)수리조합을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실지 황해도 토지개량과에서 조사실측까지한 사실이잇섯스나 어찌된 세음인지 소화이년삼월 삼십일일에 옹진수리조합의 설립인가를 엇게되자 대가수리조합의 설립문제는 그만오늘날까지 좌절이 되고마럿는데 원래이곳은 해주군대거면을 비롯하야 월뽁운산검단면등에 궁하야 십리장천(長川)의 수원이잇슬뿐아니라 전부가 옥토인 까닭게 대개수리조합의 실현을 보게되는 날에는 장래가 극히유망하다하야 백여명의 지주가련서날인한 진정서를도당국에 제출하얏다고 한다

無認可校의悲哀 結局은閉鎖令?
平南道當局에서調査를開始 "文普"第一線에異狀잇다

【平壤】 평남도당국에서는 무인가학교에 탄압을 가하기로 되여조사에 착수햇다 무인가 학교는 도내에 상당히만히 잇서 글못배호든 아동들을 수용하고 한편제를 설치하여 교수를 계속하고잇스나교사(校舍)가 업는것도 잇는관계로 조사하기까지에는 다소시일이걸릴터이라한다 도당국에서는 주지와내용의여하를 보아 인가신청수속을 취하게도할모양이나 인가받지안흔것은 결국 내용이나 취지가불온하다고 보고잇서 행정처분으로 결국폐교를 명할방침이다 빈한한 농촌에서 문명타파제일선에서 활약하든 무인가학교는 결국 폐문의 비운을 면치못할 처경에 직면하여 중대문제인만큼 금번 도당국의 태도여하가 극히주목을 끌게하고 잇다한다

江陵自動車事故 連日繼續發生

【江陵】 강릉의교통은 자동차로서유지되어잇다 그리하야 승합(乘合)과 화물(貨物)자동차업의은성은 타지방에비하야 조금도 손색업다 그러나한정된 도로에 하로에도수십차를 자동차가 왕래하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바크고 심한때에는 하로에도 수차에궁하야교통사고를내어 보는자로 하야금 전률을늣기게한다 그래하야 당국자는 업자에게 향하야 어와가튼 교통사고의 빈염에방지책을 유심하야 강구하라는데 론이 잇섯거니와 지난십일일낫 강릉군옥계면(玉溪面) 밤재(栗峴)에서 울진삼척 공동자동차회사소유 강재륙백사십팔호를 권선용(權先用)이가운전하야 오든중 강릉에서 화물을 실고나가든경강운회사소유 강재칠백오십이호와 정면충돌을 하얏는데 불행중다행으로 승객에는 조금도피해가 업섯스나 자동차만은상당히 손해를본 일이 잇섯고또 그이튼날인 십이일 저녁에는안목항(安木港)에서 비료를 실흔경강운회사소유 강재칠백구십사호를 유순건(尹淳乾)이가 운전하야 울흑향하야 오다가 농업학교 부근에이를때에 길무동이에서 별안간 자동차아폴 질너감으로 운전수는 급히 핸들을틀며 피하는데 그편에도 아이가 잇섯슴으로 급히 논바닥으로차를 모랏스나 그차 호인다에 포남리(浦南里) 리석천(李鄕天)의암 송난(宋蘭)의 영애이를 떠바며 논바닥에 너머저얼시이서 물정이 되어온것을 곳편동해임에 얽혀캐하얏고 또그차에달든 일본내지인 중서가즈에(中西カズエ)는금월의 중상을입엇다하며 이들은 그후경과가심히 양호하다고 하는데 여열이 와가튼 교통사고를 내인데 대하야 당지경찰에서 엄중히 취체하야 불상을 욕구하는동시에 당국의 일층주의를 요망하는 소리가 놀라한다。

大同江의犧牲者 今年드러十五名

【平壤】 염열지옥을 피하여 대동강에 목욕하는사람의 수는나날이 느러가고잇서 익사자의수도 금년에 드러십오명에달햇다 십사일오후세시경 부내 경제리(鏡齊里)명월관압 대동강에서 수영중이든 부내수옥리(水玉里)사십칠번지 최승선(崔承善)(一四)은 익사하엿다

無辜한通行人에 稅關吏又復暴行
亂打도猶不足세파트시켜咬傷 警察處置가注目處

【新義州】 매일 가티 이러나는 만주국 세관리(稅關吏)의 폭행사건—신의주초음정(初音町)사는 정경봉(鄭京奉)(三七)은 지난 십사일 오전여덟시경 안동현(安東縣)일번통중정죽 친척의 집에 갓다가 열두시경에 신의주로도라오는 도중 안동세관검사소압 오천여미돌지점에서 수명의 세관리에게 은괴밀수자라는 혐의로 폭행을 당한후 감시소안으로끌리어들어가 세파—트개에게 물리어 수처에 부상을 당하얏슴으로 이에 분개한 피해자는 강안파출소에 이사정을호소하얏는바 동소에서는 폭행세관리 주거(酒居)와 사미(寺尾)등 두명을 엄중취조한결과 그날 오전열시경 은괴밀수의 혐의(嫌疑)가 잇섯슴으로폭행경계를한동 결국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세관리의 말에 대항함으로 란타한것이라는데 일반은 사건발생에 큰 주목을하고잇다한다

奸夫婦가共謀코 잠든本夫를絞殺
不義의사랑을確保키爲하야 海州郡下에생긴慘劇

【海州】 그릇된사랑을 확보하기위하야 간부와간부가공모하야본부를 교살한참극——해주군동운면상정리(海州郡東雲面象井里)에사는류장성(柳長星)(二四)은 약이년전부터 가튼동리에사는 홍봉재(洪鳳宰)(二五)의처김춘화(金春花)(二二)와 본부몰래 불의관계를매저오든바 비밀한사랑에 늘불만을늣기고 떳떳이가티 살지못함으로 한하여오든바 드디여본부홍봉재를 업시해버리기로의론을하고 지난십오일오전십일시경에 전기홍봉재가 류장성의집에가서 낫잠이 든틈을타서 간부부가 협력하여 노끈으로 목을매여 교살하엿다。

이급보를 접한 해주서(海州署)에서는 엄(嚴)사법주임이 형사대를 대동하고 즉시현장에출장하야 활동한결과 김춘화만을체포하엿는데 류장성은 어디론지 다라나버렷슴으로 각방면으로 지명수배를 하고 방금체포에 노력하고잇다

뒤니어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의상량(相良)검사는 해주도립의원의 행정(行井)박사를대동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시체를 해부하는 일방 범인수사를 적정지휘중이라고한다

帆船一隻顚覆 乘客多幸히無事

【釜山】 경남양산군동면(梁山郡東面)전 김병수(金炳守)는지난십오일 오후삼시경 [illegible]에서 자긔소유범선(帆船)제삼물금환(勿禁丸)에다가 장작(薪木)을만재하고 부산 남부민정(南富民町)으로 향하야 오든도중 락동강(洛東江)입구에서 풍랑을맛나 배가전복되야 선체가 파손되얏는데 다행히 승조원두명은 근방을 통과하든 어선에게구조되엿스며 손해는 약오백원이라한다

危險한無名의茸
일홈모를버섯을먹고 夫婦가一時中毒騷動

【釜山】 경남고성군회화면 봉동리(固城郡會華面鳳東里)농업 배학문(裵學文)(四一)은 지난십사일오후두시경에 동리뒤산에서 일홈모르는 버섯(茸)을 따가지고와서 삶어서 자긔처 차덕순(車德順)과가티 먹엇는데 약삼십분후에 동버섯의중독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야 인사불성(人事不省)에빠저잇든것을 이웃사람이발견하고 곳의사를 청하야 응급치료를한결과 동팔시경에 정신을 회복하얏는데 생명에는별관계가업스리라한다

求禮 經濟大講演會

▲時日 七月二十三日下午八時
▲場所 求禮公會堂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主催 朝鮮日報社求禮支局

間島 納凉音樂大會

▲時日 七月十八、十九兩日
▲場所 龍井海星學校大講堂
◇主催 龍井海星學校
◇後援 朝鮮日報社間島支局

會寧支局後援으로 裵龜子演奏會

【會寧】 극단(劇壇)에 명성을차지하고잇는 배구자(裵龜子)악극단일행은 일본내지만주가지로돌아단이며 흥행하는곳마다 만흔호평을 바덧섯고 다시 북조선각중요도시를 려방하면서 순회흥행을하게되여 오는이십사、오량일간은 본보회령지국후원으로 일행사십명이 회령극장에서 개연하게되엿는데 명성이 노프니만지 일반은 만흔기대를 가지고잇스며 특히 본보독자에게는 우대권이잇다고한다

地方人事

▲獨孤璇氏(京城保育學校長)巡廻音樂隊員을引率하고 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洪蘭波氏(京城保育教諭)同上
▲李興烈氏(同上)同上
▲村松源吉氏(立石公普校長)新任人事次本社立石支局來訪

經濟大講演會
本社求禮支局主催 來廿三日於求禮公會堂

【求禮】 본보구례지국에서는 현하세계재정경제 통행의 구명과 일반의경제지식을 보급시키기위하야 본사주필서춘(徐椿)선생을 초빙하야 오는이십삼일하오네시반부터 구례공회당에서 경제대강연회를 개최한다는데 이에뜻잇는지방인사들은 다수청강하기를바란다고한다

困窮이나흔이慘劇
無職을理由로離婚要求妻를 亂刺、自己도自殺企圖한靑年 夫婦가모다生命危篤

【釜山】 경남김해읍대부리(金海邑大部里) 무직 김정봉(金丁鳳)(三〇)은 삼년전에 동리사는 김덕순(金德順)(二一)과 결혼하야 동거중이던바 아무런 직업이업서서 극도의가난에 빠저잇는데 이것을 리유로 자긔처로부터리혼을요구함으로 지난십륙일 아침에 김해군진영면 진영리(金海郡進永面進永里)에 자긔친척이잇서서 그곳가면 취직을 할수잇다고 속이여서 가티 전긔진영리방면을 향하는도중 동일오전십이시반경 김해군 김해읍파동군이북면(二北面)사이에잇는 삼계리(三溪里)부근골속에 다리고 가서 무수한타한후 미리준비하여두엇든 면도칼로 목을찔은후 자긔도 자살하고자 그곳에서 약이백미돌가량되는 산복(山腹)에가서 전긔칼로써자긔목을 찔럿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두리모다 급소를피하야 즉사는하지안코 고민하고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김해경찰서에 급보하야 왓슴으로 사법주임이 공의를 다리고 현장에 급행하야 응급치료를한후 병원에입원시켯스나 생명이 매우위독하다고한다

江界에늑대出現 小兒咬殺

【新義州】 평북강계군간북면수동(江界郡干北面)로상에서 그곳 한일성(韓一成)의 장남 군백(韓君伯)(三)외 수명이 놀고잇든중 돌연히 늑대한마리가 나타나군백을 물고 다라나슴으로 그곳 주재소원과 부락민들이 총출동하야 늑대자리를 하얏든바 는 산림 가운데서 전긔 아이의 의복과 두부(頭部)를발견하얏는데 현지의발자욱을보아 부근에는 사 오두의 늑대가잇는 모양임으로일간 늑대대토벌을 하기로 되엿다한다

海西地方二主校 聯合大運動會
來三十日長淵서

【長淵】 해서지방에 산재하야잇는 주일학교 긔독교련합회는 동련합회 정긔총회의결의로 래삼십일에 장연읍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되여 동회는본부에서는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각주일학교에서도 선수를선발하여 운동회준비에 정력을다하고 잇다는바 주일학교생의 경기 이외에도 일반장년단의 경기가도잇다는데 각교회의려정된 대항리—레와 각주일학교대항 「리—레」도잇스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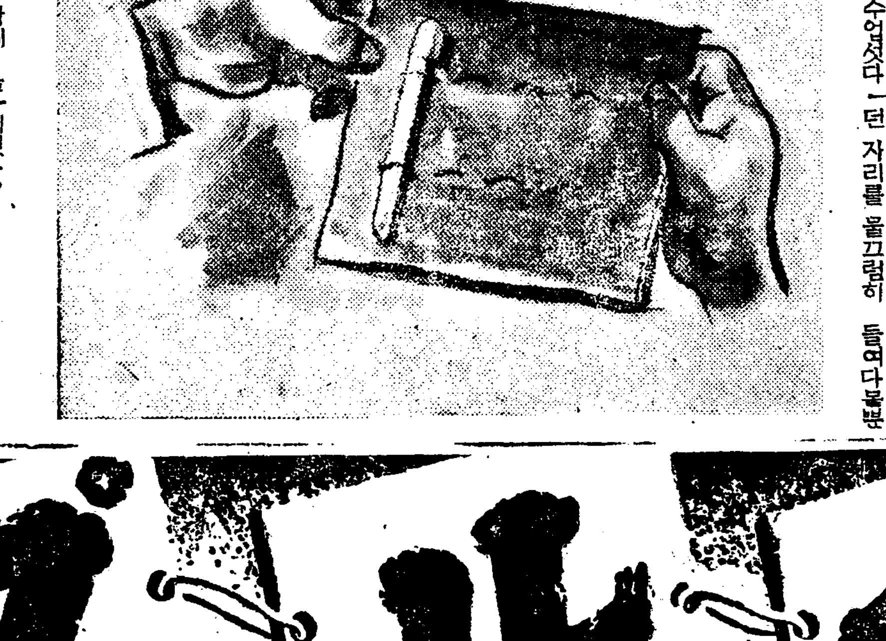
前平壤覆審書記長 中鉢公判回附

【平壤】 직권남용의로 공판중 평양형무소에 수용되엿든 평양지방법원검사국 삼본(森本)검사에게 취조를 밧고잇든 전평양복심법원 서긔장 중발위 훈오동으로 부내 산수정(山手町)에서 문방구상을하는 중본조사랑(中本)은 범죄혐의가 농후하여 십오일 긔소하여 동법원 공판에 회부햇다。 중본조사랑은 일즉이 평양에 거주하다가 동경에 이주한 친구、 중촌(中村)모에게 동인이 평양에 소유한 토지의 매매를 의뢰밧고 오천오백원으로 매매하여서 그대로 횡령하엿다는것이다。

愛慾의彼岸 【55】
李光洙 作 / 金康穆 畫

은주는 건호를 조화하지아니하엿다。 건호는 악인도 아니지마는 그리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도 아니엇다。 외양도번듯하고 말솜씨도 잇고 경위가밝은듯도 하면서도 못나고 막힌점이 잇고 입으로는 정직한것을 주장하면서도 반드시 마음이 똑바른 사람도 아니엿다。 겸손한듯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나려다보는 생각이 잇섯고 더욱이 제가 서울사람인것을내세워서 은주를 마치 세상물모르는 시골뚜기로 여기는 눈치가 잇슬뿐더러 김장로의 인색하고 자긔를못 알아주는것도그가 본래 시골 사람이기때문인것처럼 말하엿다。

이 모양으로 은주를 평소에 건호에게 대하야서 호감을 가지지아니하엿지마는 만일 건호의 사성이 정말 그러타 하면 동정아니할수업섯고 또 김장로의 건호에게 대한 처치에 굿센 반감을 아니 가질수업섯다



그래서 은주는 제 방에 올라가 고리ㅅ작 속에 너허두엇든 겨울 양복과 외투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잇던 구식 회중시계를 갓다가、

『이거 잡히신대야 이십원이될찌모르지만 갓다가 보태여쓰서요』

하고 작은돈고에서 돈 십원을 내어서 그것과 함께 건호에게 주엇다。

『이거 원 염치 업소이다그려』

하고 건호는 그다지 크게고맙다는 빗도 아니보이고 그 물건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못 갑구요。살면 가프리다』

한 마듸를 던지고는 가버렷다。

은주는 건호의 태도가 불쾌하엿다。그만큼 호의를 가지고 입던 옷까지 내어주는데、『염치업소이다』 한 마듸밧게 할말이 업던가、하고 고개를 흔들엇다。

그러나 은주가 더욱 놀라운것은 전일 장롱 속에 잇던 금비녀 세개가 업어진것이엇다。 은주는 그제야 건호의 이상하게 허둥대던것이 그것이로고나 하고 입살을물엇다。

『삼득아』

하고 은주는 사환아이를 불럿다。

『나 이첨에 올라간 동안에 너 여기 잇섯지?』

하고 은주는 삼득에게 물엇다。

『언제요?』

하고 삼득은 무슨 일인지몰라 이나 잇는가 하고 눈을 크게 떳다。

『아까 이주사 왓을적에 말이다』

하고 은주는 삼득을 노려보앗다。

『네。 아참 이주사가 담배를사오라고하서서 담배ㅅ가가에 갓다왓는데요』

하고 삼득은 어리둥절하엿다。

은주는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금비녀 세개가 누엇던 자리를 물끄럼히 들여다볼뿐이엇다。

『으응、 마음ㅅ보가 저러니까』

하고。 은주는 건호에게 더욱 김장로에게 반감을 느끼면서 전화를 걸것인가、 파출소에 도난계를 할것인가、 하고 망서렷다。

아모러나 수백원어치 물건을 일엇으니 주인 김장로에게 아모 말 업시 잇을수는 업섯다。 은주는 그만한것을 판상한 능력이 업지아니하나。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엿다。 어재ㅅ밤 도모지 잠을 자지못한 은주의 머리는 대단히 혼란하엿다。 행길로 지내가는 전차와 자동차 소리도 어듸 먼 세상에서 오는것가티 희미하게 들렷다。

은주가 김장로나 파출소에 말하면 반드시 이건호는 붓들릴것이다。 그리고 그는 죄어서 노혀나올수는 업슬것이다。 그리되면——하고 생각하면 그 뒤생각이 무서웟다。 죽어가는 그의 안해와 남지、 메칠 아니되는 그의 어린자식。

은주는 마침내 고개를 흔들엇다。 그금비녀를 팔거나 잡혀서 알는 안해를 입원이나 시킬수잇는 긔회를 주고나서 김장로에게 보고하리라고 생각하엿다。

『내가 도적 누명을 쓰더라도』

하고 은주는 결심하면서 비녀노혓던 비인 자리를 다른 물건으로 채워버렷다。

애독
매독근치의세계적명약
네오·스트몬
定價 五圓·七圓
京城南大門通一ノ三
大同製藥社

下痢·腹痛에
定評잇는
ヘルプ (헤 루 푸)
主効 過飮·過食 食傷·水傷 寢冷·冷腹 時候不順 消化不良 等으로:
체한배 아푼배 역할때 뽈는배 뗑기는배 膓가다루 胃가다루
定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三圓 六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ソース (소 — 스)
イカリ (이 가 리)
大奉仕特賣
御愛用家景品附
今期間中
어깨리소—쓰
二合瓶한개를사시는분마다
實用 유리小皿
한個式빼집업시進呈
速히下命하시옵기를!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冊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書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不思議秘傳秘法寶典
發賣元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

堅實하고有望한
직업은장갑
專屬製造家募集
自動休針裝置의特許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京城府鍾路六丁目初儒東

아모리기름을실혀하시는분이라도
산뜻하고
꼭마음에맛게되는것은評判조흔
ランラン洋髮香油 (란 란)

朝鮮內金融體系

一縣一行主義의 出現은 廣義國防上金融統制로

●……申 泰 鴻

朝鮮 [illegible]은 지난 [illegible]時議會에서 金融統制의 見地上 地方銀行을 整理合同할方針이라고 言明하엿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大藏省 事務當局은 그方針에 依하야 所謂 一縣一行主義를 目標로한 整理에 손을 대이기 비롯하엿다 그럿거름으로 兵庫縣의 銀行合同이 成立되고 그뒤를 잇더며 福井 各縣에 散在한 銀行의 合同整理에 밋치라는 途程에 잇는것이 오늘의 그形勢이다

×

그래서 日本의 金融機關制度에잇서 처음에는 米國의 小銀行分立主義를 模倣하엿다가 다시 英國의 大銀行主義에 傾하야 銀行의 整理合同에 손을 대여 高橋藏相의 [illegible] 銀行合同促進政策으로 顯著히 銀行의 減縮을 보아 이로써 銀行合同이 一段落을 告하엿다 그래고 다시 馬場藏相의 一縣一行主義로 銀行의 强化에까지 일으라는것이다 이와가티 銀行整理 그後藤의 强化를 보게됨에 對하야 말하에는 一般的金融機構强化 卽金融統制의 그結果를 [illegible] 안흘수가 업게되다 卽 ▲軍部는 廣義國防을 强化하기爲하야 다음과 가튼三大方針에依하야 [illegible] 金融統制를 要望한모양이다

以上의 三大要望에 對하야 分解하여 보자。

(一) 軍事費供給을 하기爲한 統制에는 다음과가튼 法律的 또는 行政的으로 公債消化力을 擴大케하는 具體策이 必要케된다 卽

(가) 金融信用機關統制保의 [illegible]

(나) [illegible]

×

(二) 以上과가튼 公債消化力을 增大케하기爲한 統制도 [illegible]

(가) 增大하는 軍事費의 供給을 可能케하기爲한 金融統制

(나) 戰爭이 [illegible] 金融統制

(다) 國民生活安定化를 爲한 金融統制

(三) 以上에서 國民生活을 安定케한 統制이다

(가) 以上에서 말한銀行의 整理合同은 國民生活을 安定케할 一化의 必要를 늣기게된다 × 그러케되어 一縣一行主義로 地方金融統制 [illegible]

(續)

端境需給採算上 百萬石의 拂下?

◇……買換또는 整理로

廿一日米穀委員會에 諒解를 求해

【東京電話同盟】今月二十一日 米穀統制委員會를 또二十三日에는 米穀顧問會議를 各各開催키로 決定한바 이것은 中間報告를 할목적으로하는바 端境需給採算上 此際百萬石程度의 買換拂下、또는 整理拂下의 諒解를 求하여둘모양이라고한다

"農業動産金融令"

最近財務局에서 成案

朝鮮의 農業動産金融令의 制定은 最近財務局 理財課에서 立案中이더니 最近에 成案되야 不遠局議에 諮問한뒤 審議室에 廻付키로되엿는데 그法令의 骨子는 다음과갓다고

一、朝鮮의 農山漁村 金融上의 擔保力을 擴張하고 生業金融의 圓滑을圖함

二、農業動産의 意義를 對하야 農業動産所有者와 抵當權者의 權利義務를 規定

三、農山漁村의 中小産者金融을 合理化하고 産業의 改善發達을 圖함

하고 此를 身分別及 事由別에 示하면 (身分別)

高等官	二	判任官	三六
鐵道手	二九	雇員	一〇一
傭人	二〇二	計	三七〇

(事由別)

長期病休者	九五
退職希望者	一〇五
志望者	一三八
其他	三二

鮮航同盟會解散

昭和五年結成된團體

鮮航同盟會는 昨年七月의 運賃協定決裂로 八月一日부터 事實上 崩壞한대로 오늘에 일은바 그運賃契約期間이 今年四月末까지로 되엿든바 運賃協定을 일은때문에 解散의 形式을 바래지아니엿스나 十五日 評議員會를 연結果 解散을 決議하고 幹事會社에 依하야 淸算事務에 드러갓다 그래서 昭和五年十月十六日 結成以來 畢竟形式上으로도 消滅되고 말엇다

阪神의 米運賃

結局實施延期?

阪神以西의 朝鮮米運賃은 八月一日부터 阪仁標準每百石에 對하야 五圓引上으로 實施케되엿스나 問題의 名古屋以東의 所謂京濱間運賃改定에 아즉決定되지못하고 鮮航의 後援과가티 簡單히 解決키어려운 狀態에잇슴으로成立한 阪神協定도 京濱協商이 成立하기까지는 結局實施를延期치안흘수업슬것이라고한다

水俣硫安移入

鮮滿販賣會社에서는 興南工場製品이 七月物의 輸移出로 在庫品이 떠러저야 朝鮮內需給이 窮策케되엿스므로 水俣(日窒)工場의 製品約二千噸을 移入키로 되엿다고한다

米輸送會社

新團體成結

廿二日大阪에서

二水會(阪神의朝鮮米輸送關係團體)에서는 過般 京城의 運賃協議會에서 決定한運賃協定交涉委員으로 지난九日 代表會에 大阪商船幹事會社에 朝郵、辰馬의二社를 選定하엿는데 船會社의 新團體結成에 對하야는 二十二日 大阪에서 關係八社가 會合하야 協議會를 열고 朝鮮米積載의 責任問題에 對하야도 協議決定할터이라고한다

東亞勸業買收

兩者交涉이 接近

鮮滿拓殖會社創立의 前提인 東亞勸業買收交涉은 總督府와 滿洲代表者間에 十餘日間 財産評價에 對하야 兩者間 相當한 隔離가 잇섯스나 十六日에大體兩者의 意見이 接近케되고 十七日 午後의 折衝으로 大體兩者의 意見이 一致케될模樣이므로 入京中의 兩坊東亞勸業社長、谷川滿鐵理事長은 一兩日中에 歸社하야 右折衝經過를 報告後 承認을 求하야 兩者間의 調印을 하기로되고 右調印後에 鮮滿拓殖會社의 創立委員選任으로 準備는 急速히 進展될모양이라고한다

鐵道局大整理

八月上旬에斷行

鐵道局에서는 八月上旬을期하야 人員整理를 行키로되여 十七日 一齊히 內命을發하얏는데 右는 最近經濟의 急激한 伸展에 應하야人心을 一新하고 全從業員에 一段의 緊張努力을 促하려는것으로 今回의整理目標가 되것은 長期病休、不健康 又는 老齡으로 職務에 精勵키 어려운者、

京城都賣物價

繼續昂騰示現

六月指數一九〇•一四

世界各國의 國防費擴大로 各物價가 急騰되는 影響이 朝鮮에도 波及되엿이지 朝鮮銀行調査六月中 京城物價指數는 一九〇、一四(明治四十三年七月의 것을 一〇〇으로 基準京曲한것)으로서 前月보다 三、四四 昨年同月보다 二二、七一의 暴騰이엇다 六月物價를 前月을 一〇〇으로 하면 一分八厘四毛 昨年同月을 一〇〇으로하면 七分一厘六毛의 騰貴이엇는바 이제 調査卅種目中 比前月騰貴十三品、低落六品、保合十一品이엇스며 各種目別平均價格과 指數比較는 如左하다

郵貯의 拂狀況

昭和十年度中에 全朝鮮各郵便所에서 取扱한 郵便貯金의 受入金額은 一億二千百二十八萬五千八百十二圓이며 拂出金額은 一億二千百二萬一千八百九十五圓인데 이것을 前年度中의 取扱高에 比較하면 受入은 一割三分、拂出은 一割九分의 各增加이엿다고

米日爲替少弱

【京城十六日發同盟】十六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實二十九弗三十八仙으로 一仙低 買二十九弗三十六仙으로 一仙低

取引停止

(七月十四日)▲製業 京城府阿峴町二九七番地 柳東鉉▲京城府通義町一三〇番地 萬和商會 郭鳳教

▲東京爲替(十七日)

對米 買 二十九弗十六分五 賣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買 一志二片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世界的으로 軍縮은 一途 物價는 世界的으로 騰貴 一途

○世界的 軍備인플레의 高潮은 엇고 物價高로 大衆生活은 窮乏 一途

○全朝鮮 自動車業 一道一社主義로 統制進捗中。이왕이면 鐵道局에서 買收直營이 若何?

○『鮮航同盟會』는 後解散 저의끼리 짓고 까부르고 잘도한다

經濟界消息

○商銀增資計畫與接地買收=商業銀行에서는 社屋을增築키爲하야 畫者淵町屋、鐵筋瓦屋、日本紙業所有의 隣地百三十坪買收談을 進行中이더니 結局買收되야 不遠工事에 着手키로되엿다고

○東洋製絲總會會長補選=東洋製絲會社에서는 八月中에 臨時株主總會를열고 辭任한 取締役會長 小川瀧太郎氏의 後任補選을 할터인데 後任은 新三井支店長 大俵後雄氏로 內定하엿다고

○朝鮮蔘酒八分配當=朝鮮蔘酒會社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東京日本工業俱樂部에서 定期總會를 열고 上半期決算案을 附議할터인데 配當은 八分據置의 方針이라고

○米倉龍塘浦倉庫=米倉에서는 龍塘浦의 倉庫(五百坪)建設에 一兩日中에 着手할터인데 今秋十月의 新穀期까지 竣工할豫定으로 支店의 開設도 同時로 될터이며 支店은 海州邑內에 設置할豫定이라고

○貯銀取締役後任=新田新吉氏內定 =貯蓄銀行은 廿五日의 定時總會에서 取締役 故權野勤氏(殖銀代表)의 補缺選擧를 할

商況 【十七日】

株式 雙方警戒 採合

前場保合 今前場은 保合이엿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雙方의警戒的 觀望으로 强弱十錢高인 百三十四圓丁、日産十錢高인 七十六圓八十錢、朝鮮十錢低인 三十二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日曹七十一圓五十錢 朝石十九圓五十錢、日鋼百八圓丁 鐘新百五十九圓三十錢으로 八圓九十錢이엿다

△東新 三圓○(寄)三圓○(引)…… (前)

△日産 [illegible]

後場採合 十八日부터 戒嚴令解除이나 後場은 別無好感이오 依然細刻이엇스니 東新百卅三圓九十錢、大新七十四圓十錢、日産七十六圓六十錢、鐘新百五十八圓九十錢、朝新卅二圓四十錢、拓新廿二圓六十錢에 各大引、朝石十九圓五十錢

政局不安擡頭

陸相重大決意

六個年間三十億圓의 軍需支出에 對하야 藏相의 反對는 認識不足이라하야 寺內陸相은 諸職권 原案을 固執키로 財政當局과 正面衝突必至의 形勢이오 從하야 廣田內閣豫算審議를 契機로 重大難關에 逢着하야 政局不安이 擡頭되고 株式市場도 다시 嚴戒人氣濃厚케되고 昨日買場尖敗한 東新은 當分間 庚天井으로로 보이어 買氣不昂이엇다

東新逆日步

=本日步가 繼續되던 東新은 日本內地의 株不足에 伴하야 當地도 今日發表는 千八百九十株의 不足으로 逆日步四十七錢이엇다

日産押目難平買

根據는무어인가

日産株의 押目難平買의 理論的 必然的根據를 例擧하면 如左하다

1、增稅를 契機로한 株式利廻地均運動은 必然的으로 高利廻株이오 安全株을 得케되日産株의 物色買를 誘發할것

2、今後의 日産株는 東新의 代役으로 人氣株일것

3、持株會社는 即日産의 子會社는 金鑛이며 또 軍工、漁業食料가 모다 去食內容業績共히 良化되는 中이것은 久原氏失脚과 相俟하야 日産의 人氣를 回復케할것이다

4、지금까지 極度로 人氣를 喪失하엿든만큼 人氣回復되면 日産의 投機的 性質과 相俟하야 人氣의 灼熱化를 招來할것

5、一割配當이 確實한 今日 七分利廻의 七十一、二圓은 日産의 最低價이오 如何히 株數가만코 投機株라하나 市場性이 絶大한點으로보아 七十四、五圓은 格低이것

6、一般工業株가 滿利廻까지 買한今日 有望한工業會社의 持株會社인 日産株도 高利廻의 修正을 招來할것

7、從來 日産株가 低位에 沈滯하얏던것은 減配不安과 久原問題와 增稅不安이엇는데 이런 不安이 解消된今日 日産은 그機能을 發揮하야 相當히 好調를 回復할것

8、日産은 持株會社임으로 解散價値附近으로 決定될것인바 日産의 解散價値는 如左하다

資産之部

證券時價	三一四、一二三七千圓
投資會社	二八、四二〇
預金現金其他	二六、八一〇
合計	三六九、三六七

負債之部

拂込資本	一二四、五六三
積立金	三七、〇九一
負債	五八、七二三
合計	二一九、三八六

總資産 三六九、三六七千圓에서 諸負債 五八、七二三千圓을 減하면 正味財産이 三一〇、六四四千圓이되고 正味財産을 株金一二四、五六二千圓을 除하면二四九%로되고 그럼으로 解散價値는 五十圓에다가 一二四九%를 乘한것으로 即 百二十四圓五十錢이 되다。從하야 株式으로서의 危險性을 考慮에 너어도 日産의 八十五圓乃至九十圓이잇서도 不合理는 아닐것이다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一九三〇 ▲東京電燈新一九五〇 ▲日満아루미五三八〇 ▲秋田木材新一七九〇 ▲大同産業四六〇(取引高 一二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金融緩慢豫想으로 호合上伸을 告한市場은 買氣一巡으로 價位待望物로 再次反落이오 佛貨二十八年等의 二、三十錢低、米貨債는 一二、三圓의 急反落을 演하고 三分半債도 順大警戒도 어十錢의 下押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八五 ▲一二回四分利 一〇二、八〇 ▲二回四分利 一〇二、〇〇 ▲佛貨四分利 一九九、二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一九 ▲第二三五分利 一〇一、一九 ▲二二 [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米國小麥價高

供給의不足으로

【經濟十六日發同盟】米國農務省은 十六日農産物의 現狀에 關하는 調査報告를 發表하고 米國內小麥市勢가 外國市勢보다 노프는事情을 밝히엿다 이에依하면 米國에서 過去三個年 小麥生産이 國內需要에 達치못한때문에 國內市勢는 리파풀의市勢에比하야 比較的高價로 推移하엿는데 이狀態는 아프로도 繼續할것이다 一面 위니페조와 리파풀의 市勢도今年은世界의 小麥供給이 減少할모양이므로 아마昨年보다는노프게될모양이라고한다

米……期待하든 비는 왓다

……百三十六圓八十錢에買煽失敗하야 三圓俸暴落갓든 東京新은 百三十三、四圓臺에서 今前場은保合▲이번反撥好轉이 一回 過度悲觀修正의正常市勢回復二回 增稅一擲圓穩度로鄉橫 當力國營不可能을爲始한統制經濟 微弱에根據를 것이엇는데▲陸軍의三十億豫算提出로 增稅急激再擡頭 金融資本家의 反國家的 行動制壓의 統制强化를 내세운것을 보면 買材料의 一은喪失 되구나 政黨拳擊로 內閣運命까지危殆할모양이니 大인푸레를 翻歌하는前에 一擲穩度?

아즉、또개지 놀안첫다 今朝六時까지의當地雨量은 十六미리에不過하나 可謂一滴千金이라하지안홀수업는것▲아즉雨는 朝鮮南部에는 이번비에凶作說은因解消되고야 말모▲今朝三十一圓丁까지떠러진바람에限月全部가 暴落이고 止際의反地突高로依然十五丁의反高를 示하지만 戰雲으로시작歸는大勢으로移動▲그러나 低落途中의 十餘丁反撥는 찰하리 意懷하다 그로수잇다 또그以上의 瓦落 全部을지누가 볼라?

期米 順氣拂下 崩落

前場崩落 昨後場을 繼續하야 中部의 慈雨로 米作懸念을 一掃하야 百萬石買換拂下說까지 擡頭되야 一齊히 崩落을 演하야 共히三十二圓三十二錢에 二十七錢安에로 다시 二十七錢高、三十三圓二十五錢、前場崩落 그二十六錢의 十九丁反落東京二十三五十錢으로 相俟하야 三十一圓廿九錢으로 大阪仁川下押하엿다가 依然二十六錢으로 反落止하야 三十一圓 丁까지低落하엿다가 結局十四錢高에 反落止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至十一圓十錢에下支이고 五節十錢으로 三本同價止하엿다

中部의降雨는 可謂一滴千金

太平洋의 高氣壓은 退치안코잇드가 本南方海上에 勢力을 뻐치고잇스며 滿洲東部及 全州附近에는 微弱한低氣壓이잇서 中部以南은 大邱의 雨量이 十數미리 特히 慶南地方은 또數十미리의 雨量을보이고 今明日도 降雨量 繼續하야 豫報에依하야는 大雨가 잇슬모양이오 北部地方은 乘雨量 豪來할모양이다 그런데 早地中部가 十四、五日만에의 降雨로 그雨量은 今六時까지에 京城十四미리 仁川十六미리에 不過하나 可謂一滴千金이라할수잇스며 降雨는 아즉도繼續中임으로 旣植한畓田에는 얼마를解渴되엿다 그러고 今回의雨天이 끗依復되고아니될지는 물으지만도 萬一雨量이 充分한때에는 너머遲延의嫌이업지아니하나 足히移秧할수잇스며 此만으로도 代作用보다

丙子年强氣가 아즉도未解消

六十年前의丙子年은 朝鮮米穀의凶作으로 今丙子年도 또한凶作이아닌가하야 米穀屋上에 何等의根據도업시 米人이라면 米人이모다凶作을豫想하엿든 米穀屋法이 의豫想을비미엿든 農家의 經濟觀은 一層强氣하야 端境期에 入하면 又一層高騰을 强할모양이라 大勢오 期待가 쉬웁게 大勢勃을 發하는 淸算市場의 人氣도 大凶作까지 米價方針을 取할모양이나 米價가 低落할수록 恐怖心으로 米價가 高騰할것이라 보다는 오히려 一考를 要하며 農家의 期來 賣惜한모양이오 淸算市場의 賣方인 光景이며 實物을 惜賣하도 엇지아니하야 依然持久的策戰을 하는 農家의 賣惜도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보이나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告하는때는 買疲弊의 損切을 나오며 期間의 投物이 無出하야 비로소丙子年의 强氣가 解消되지안흘가

今日財界(十七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三一・一〇
大阪期米	先限	三一・八三
三等米(仁川)	一石	三〇・〇〇
正租(仁川)	一叭	三〇・〇〇

◆株		(單位圓)
朝新		三二・〇〇
東新		一三三・九〇
日産		七六・六〇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公債FQ		[illegible]

各地正米

東京 [illegible] 田中氏의 防戰買로 一息이어다 中東田中氏 賣方 [illegible]

東城暴落

[illegible] 暴騰하야 賣方共히 [illegible] 期米低迷와 [illegible]

仁川弃落

期米의 期米暴落으로 一等四十錢이 [illegible] 一等白米二十三圓五十錢 [illegible]

釜山軟弱

[illegible]

大邱下放

市中取引狀況[illegible] 期米의 一層反落으로 [illegible]

木浦氣崩

定期反落에 追從하야 [illegible] 一等白米二十二圓九十五錢

群山反落

新規買物 拂底로 [illegible] 白米十三圓丁

米 仁川 東益商店 光皿 株式會社 金益證券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米 株式 玉 仁川本町 京城本町 柳來恒取引店

金 福 石 金 土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 [illegible] 本局四八五六

金融 十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市中金利◆ ◆金買入價◆ ◆京城市中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對外爲替◆ ◆大阪金利◆

穀物 十七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綿布 十七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仁川沖仲◆ ◆釜山沖仲◆ ◆日本麥粉市勢◆ ◆大連特産市勢◆ ◆滿洲商況◆

株式 十七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實價高◆ ◆大阪長期◆

期米 十七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各地正租市勢◆

砂糖 十七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判外豆粕◆

[illegible]